

써니와 함께 떠나는 7박8일

이집트 여행

카이로 - 룩소르 - 아스완

신 선 화
Sunny Shin

sunnyshinart@gmail.com

www.instagram.com/freshflowerinart

1983년 부산에서 태어난 신선화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갤러리스트이자 아트 에듀케이터이다.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부일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으나,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입시 미술을 짧게 배운 뒤 홍익대학교 조소과에 진학했다. 예술가는 비범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 속에서 작가의 꿈을 일찍 접고, 예술학과를 복수전공하며 큐레이터를 진로로 선택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국내 유명 갤러리에서 통역, 아티스트 어시스턴트, 도슨트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대학 졸업 후 어학연수를 계기로 뉴욕으로 건너가 첼시의 소규모 갤러리에서 무급 인턴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대만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큐레이터, 한국계 갤러리의 디렉터를 거쳐 첼시에 자신의 갤러리를 오픈했다. 갤러리 운영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과 아트 투어 사업을 꾸준히 기획·개발했으며, 2016년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에 2호점, 2017년 서울 한남동에 3호점을 오픈하며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

2019년 늦가을, 도시별 아트페어 참여를 중심으로 갤러리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며 뉴저지 지점을 제외한 분점을 정리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일시 중단되었고, 이 시기에 취미로 도자기 작업을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뉴저지 갤러리에서 전시와 도자기 수업을 병행하며, 외부 활동으로는 아트페어에 집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뉴욕, 오스틴, 필라델피아, 서울, 싱가포르 등 국내외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여하며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다.

2022년부터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에듀케이터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사설 업체와 협력하여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다. 오전에는 미술관 에듀케이터로, 오후에는 갤러리스트로 일하며 교육과 시장을 연결하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에서 남편과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여행은 최고의 교육이다

-귀스타브 플로베르-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혼자 길 위에 서서 느낀 자유와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다. 일본, 중국과 유럽을 누비며 낯선 도시와 다양한 사람 속에서 인생을 배웠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로 미국에 와서, 부족한 영어로 첼시의 작은 갤러리에서 무급 인턴 일을 시작했다. 유창한 중국어 실력 덕분에 중국계 갤러리로 이직을 했고, 눈물과 좌절 속에서 큐레이터로 성장했다. 이후 첼시에 위치한 한국계 갤러리에서 디렉터를 거친 후 마침내 나의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우리는 매년 함께 자유 여행을 다닌다. 길게는 열흘, 짧게는 일주일. 바쁜 일상 속 귀한 시간을 내어 떠나는 여행이다. 준비 과정과 현장에서의 경험, 일상으로 돌아온 후 남기는 기록까지가 나에게서는 여행의 일부다.

과식으로 손끝이 파래지고 숨이 가빴던 페루의 마추픽추, 입김이 얼어 속눈썹에 고드름이 맺혔던 캐나다의 옐로우나이프의 오로라 헌팅,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리터 맥주잔을 들고 어깨춤을 추었던 시간, 늦은 밤 베니스의 좁은 골목을 산책하던 꿈같았던 달 밤, 반려견 선데이와 함께한 그랜드캐년과 서부 캐년 여행, 저렴한 물가와 풍성한 볼거리를 즐긴 튀르키예, 매일 밤 와인과 타파스를 즐기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스페인, 아줄레주를 보기 위해 향한 포르투갈까지. 모든 여행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젊었을 때만 갈 수 있는 모험을 우선 순위로 삼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계획하는 나의 성향과, 어디든 괜찮다고 느끼는 남편의 무던함이 좋은 조화를 이룬다. 옐로우나이프와 마추픽추를 경험한 뒤, 더 늦기 전에 꼭 가야 할 여행지로 우리는 이집트와 인도를 고민했다.

이집트와 인도는 결코 쉬운 여행지가 아니라는 것을 익히 들어왔다. 질병을 조심해야 하는 지저분한 환경, 혼잡한 인구와 과도한 호객 행위, 사기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과 인종 차별에 대한 수 많은 후기와 경고가 우리를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 오랜 공사 끝에 완성된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움직였다. 이 해부터 MET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투어를 시작했던 터라 이집트 문명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과한 호객 행위가 사라지고 여행 환경이 한층 쾌적해졌다는 최근 정보가 용기를 주었다.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피라미드와 나일강, 새로 지어진 박물관까지. 가자. 가보자. 사람사는 곳은 어디든 비슷하지 않겠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떠나는 7박 8일의 여정. 그 여정을 일기처럼 남기려고 한다. 나와 함께 길 위에서 숨 쉬며, 보고 느끼고, 걸음을 옮기는 여행. 함께 가보자.

이집트 여행 준비

여행시기 & 날씨

우리는 남편의 휴가기간을 맞춰서 2026년 2월 중순, 구정 기간에 7박 8일 일정으로 이집트를 가기로 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지만, 아침저녁은 쌀쌀한 초겨울 날씨 정도이고 낮에는 반팔을 입을 정도로 덥다. 북쪽인 카이로는 낮에도 긴팔을 입을 정도가 되지만, 남쪽으로 내려간 룩소르나 아스완은 낮이면 작열하는 태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아침 저녁에는 누빔이 들어간 셔츠에 얇은 패딩이 적당하고, 낮에는 얇은 긴팔이 좋다. 그리고 현지에 가면 스카프를 판매하는데, 엄청난 모래바람과 먼지를 경험하면 그 이유를 알게된다. 선그라스 및 모자, 스카프로 맨살을 가리는것은 필수다.

1-2월은 여행의 성수기라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여행한 기간은 중국도 명절이어서 많은 중국인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무렵부터는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다. 2월 여행을 생각 한다면 라마단 기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라마단 기간동안 무슬림들은 낮에는 금식하고 저녁기도 후에 만찬을 즐긴다. 축제같은 분위기를 보는것도 좋지만, 라마단 기간에 유명 음식점이 낮시간에 음식판매를 중지하기도 한다.

비행기 티켓

미국 뉴저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Newark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찾았다.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일정으로 결정했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이스탄불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항공료는 1인당 약 700달러로 생각보다 저렴했다.

환전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파운드 (egp) 를 사용하지만, 미국 달러도 통용된다. 1달러, 5달러, 10달러 지폐를 충분히 준비하고, 소액은 물건 구매시 이집트 파운드로 준비하면 편리하다. 우리는 1달러짜리를 많이 준비해서 갔다. 유심칩을 구입하면서 환전도 함께했다. 공항에서 비자를 사면서 환전을 함께했다. 시내에 나가서 은행을 가면, 환전 ATM이 있다. 달러를 넣으면 현지돈으로 주는 기계이다. 현지돈을 넣으면 달러로 바꿔주는 ATM도 있으니, 언제든 환전은 쉽게 가능하다. 환전이 쉬워서 현지인들도 달러를 많이 받나보다.

교통

인드라이 (inDrive) 앱을 주로 이용했다. 우버 (Uber)도 되고, 인드라이브도 사용가능하다. 우버는 카드로 비용이 결제되고, 인드라이브는 택시 부를때 흥정을 한 후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우버와 인드라이브 모두 사용해본 결과 인드라이브를 추천한다.

인드라이브에서 Good Fair 정도에서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시작하면, 빠르게 택시가 잡히고 운전사도 만족했는지 귀찮게 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추천가격이 110이면, 150을 부르면 된다. 우버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택시가 잡혀도 드라이버가 메시지를 보내서 흥정을 한다. 그리고 흥정이 안되서 취소하면, 우버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항에 올때는 기사들이 공항 파킹비도 요구를 한다. 아스완에서는 50 egp, 카이로에서는 30 egp 을 요구했다. 잠시 드랍해주는것은 돈을 받지 않는것 같지만, 작은 돈으로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비용을 지불했다.

유심칩

열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21기가 바이트를 약 10달러에 구입했다. 공항의 짐 찾는곳 근처에 가면 통신사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브랜드에 상관없이 인터넷이 잘된다고 한다. 우리는 We 라는 곳에서 구입했고, 인터넷은 아주 잘 되었다. 카드 결제로 가능하지만 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하니 그들의 태도에 기분 나빠하지 말길. 그리고 1인당 1유심칩을 권장한다. 호텔 및 숙소에서 인터넷은 아주 느리고 불안정하기에, 유튜브 및 동영상을 보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비자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면 현장에서 비자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 25달러를 준비하면 입국 심사 시 바로 발급된다. 정말 비자를 돈을 주고 은행 창구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은행창구 두 개가 있다. 어디서든지 상관없고, 줄이 짧은 쪽으로 가면된다. 인원수를 말하고 현금을 지불하면, 비자를 준다. 그 비자를 가지고 출국심사를 하면, 직원이 비자를 여권에 붙여준다. 그때서야 이 비자가 스티커였음을 알게된다.

짐과 배낭

이번 여행에서는 캐리어 대신 배낭을 선택했다. 공항에서 환승할 때 짐 보관소가 따로 없고, 오래된 흠길은 캐리어로 다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낭을 메고 다니면, 짐을 들어주고 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피할수도 있다. 더운 날씨때문에 시원한 물을 항상 텀블러에 들고 다녀야 하므로, 작은 크로스 가방도 준비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배낭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나는 35리터짜리 배낭을 구매했고, 남편은 40리터짜리 배낭을 구매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았고, 비포장길을 많이 걸어야 했고, 비행기를 타려면 계단을 걸어서 셔틀버스를 타야하기에 짐을 간소하게 줄이고, 배낭을 추천한다.

티켓 구매

이집트 주요 유적지의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할 수 있다. 티켓이 있으면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므로, 현장에서 더운 날씨에 줄을 선다던지 호객행위에 피곤해질 필요가 없다. 다만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에러가 날 수 있으니, 여러번 티켓구매에 실패해도 계속 다시 시도하면 언젠가는 된다.

이집트 관광청 공식 사이트

<https://share.google/tdHKIMRcENUJGVTOQ>

우리는 미리 일정을 짜고, 티켓을 구매했다. 온라인이 잘 되지 않기에 결국에 몇개의 입장권은 잘못된 날짜로 구매했다. 티켓에 쓰이는 관광청에 이메일을 보냈더니, 원하는 날짜의 티켓으로 보내주었다. 관광청에서 바로 처리해주지 않은 티켓은 현장에 가서 바꿨다. 안내센터에서 티켓 사용여부를 확인 후 친절하게 입장을 도와주었다.

룩소르에 도착해서 보려고 했던 필레신전을 못보았는데, 기차 연착때문이다. 기차가 두 시간이나 연착되었고, 동절기에는 오후 3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아까비.. 이집트에서는 비행기와 기차가 연착되는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어쩌면 제시 간에 출발하는것이 행운이라 해야할 정도랄까. 도시를 이동 후 관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장에 도착해서 티켓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이집트 숫자

택시를 타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아라비아 숫자 대신 아랍어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아랍어 숫자를 암기해두면 편리하다. 신형 자동차들의 번호판은 아라비아 숫자도 표기되어 있기도 했다.

• (0), ١ (1), ٢ (2), ٣ (3), ٤ (4), ٥ (5), ٦ (6), ٧ (7), ٨ (8), ٩ (9)

시장에 가면 가판에서 과일이나 물건을 쌓아두고 가격을 써둔다. 옷이나 양말같은 공산품은 하나 혹은 한 팩의 가격이고, 과일이나 대추야자 같은 식재료들은 1키로당 가격이다.

물가

항상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흥정을 극도로 싫어하면 이집트 여행은 고역스러울 수 있다. 흥정을 위해 대강의 가격을 알아두면 편하다. 개인적으로는 몇 백원을 두고 싸워서 기분 나쁜것보다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편하게 여행하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2026년 2월 기준 물가

1 USD = 47 EGP = 1,450 KRW

500ml 물 : 음식점에서 20 - 35 파운드, 슈퍼에서 10 파운드

25분 거리 택시: 150 - 200 파운드

캔 음료: 15-30 파운드

코사리 한 그릇: 20-40 파운드

생 망고 주스: 50-100 파운드

맥주: 60-100 파운드 (공항에서 330 파운드에 사먹었음)

티셔츠나 전통 술: 100 파운드

특특 10분 거리: 10-20 파운드

레스토랑 식사 메뉴: 280 - 450 파운드

내가 샀던 물건들

체크무늬 스카프: \$1

커스텀 은반지: \$35

파피루스 책갈피: \$5

아스완 울 스카프: \$17

시장 에피소드

아스완 시장에서 과일을 샀다. 상인에게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고 높게 부를것이 뻔하다. 그래서 장보는 현지 아주머니들이 물건 담고 계산하는것을 지켜보았다. 행동을 하기 전에 현지인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크게 속을 일이 없다. 오렌지를 봉투 가득 담은 아주머니에게 오렌지가 키로당 가격이냐고 물어보니 그렇단다. 봉투 하나 가득은 담은 이 것은 2키로치라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산 양의 절반만큼인 커다란 오렌지 6개를 담고, 풋말에 써있는 15파운드를 내었다. 그러자 상인이 별안간 아주머니께 버럭 화를 낸다. 물론 아랍어라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하나에 15파운드씩 받을 수 있는데 왜 남의 장사에 초를 치냐는 것 같았다. 순간 나때문에 애꿎게 한소리 들은 아주머니께 미안해졌지만, 속지 않고 현지인처럼 샀다는 생각에 내심 기분이 좋았다.

많이 걸었더니 발톱때문에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손톱깎이를 사야했다. 영어를 못하는 현지인들에게 손톱발질 마임을 하면서 설명했다. 이집트산은 3달러, 미국산은 5달러라고 했다. 그래서 이집트산으로 1달러에 깎아서 샀다. 손톱발질하면서도 흥정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여하튼 기념품으로 손톱깎이를 갖게 되었다.

카이로 2박 3일

Day 1 - 피라미드, 스피нк스, 전통시장

Day 2 -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나일강 요트

Day 3 - 이집트 문명 박물관

첫날은 비행기에서 거의 하루를 보내게 된다. 경유지에서 약 4시간 정도 있는데,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밤 비행기를 10시간 남짓타고 도착한 이스탄불. 간단히 식사도 하고 면세점 구경을 하면서 쉬었다가 카이로행 비행기로 갈아 타면 된다.

이스탄불 신공항은 시설도 좋고 쾌적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행시간이 길어서였는지 배가 고팠다. 4년전 튀르키예 여행을 했을때 맛있게 먹었던 터키음식을 회상하며 음식점을 찾았다. 그런데 물가가 말도 안되게 비쌌다. 두둥! 햄버거 세트 하나에 35달러씩이고, 터키식 케밥은 50달러가 넘었다. 양도 적은 패스트푸드를 이 가격에 먹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워서 간단히 요기를 했다.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는 뉴스는 접했지만, 이 정도 일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제 뉴욕에서 먹은 파파이스 햄버거 단품이 뉴욕에서 6달러 였는데, 여기에서 23달러다. 맨하탄보다 물가가 비싼곳이 터키 공항이었 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후에는 비자를 발급받고, 유심칩을 구매했다. 카이로에서 묵을 호텔에서는 무료 공항 픽업서비스가 있어서, 미리 공항픽업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다. 공항 입구에 별떼처럼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니 저절로 뒷걸음이 쳐진다. 사람이 덜 모인 옆문으로 나가서, 픽업 택시 기사님을 찾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기사 아저씨가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차에 타니 벌써 새벽 1시가 다 되었다. 공항에서 숙소가 있는 기가지역까지는 50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 50분의 라이드는 아주 특별했다.

분노의 질주

카이로의 교통은 혼돈의 카오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120키로를 넘는 속도로 내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조차 차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차가 가는곳이 길이고, 비좁은 자동차 사이를 사이드미러가 서로 닿을듯 말듯하며 서로 잘도 비켜서 달려다닌다.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라는것이 바로 이거다! 자동차들의 상태를 보니 성한곳이 없다. 모든 코너가 찌그러지고 굽힌 자동차들을 보니, 얼마나 험하고 신나게 운전했는지 상상이 된다.

카이로의 폭주족도 보았다. 여러대의 오토바이에 젊은이들이 묘기를 하며 도로를 내달린다. 비상등을 켜 자동차 창문밖으로 젊은이들이 상체를 내밀고 소리를 지른다. 어릴적 90년대 뉴스에서나 보던 폭주족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볼 줄이야. 너무 신기했다.

폭주족이 거슬린 우리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때려 박을 기세로 그들을 위협하며 운전을 한다. 50분간 스티어링은 도로를 달려본 후 그들만의 법칙을 얼추 이해했다. 무질서해보여도 “내가 지나갈게~” 라는 표시로 짧은 경적을 뽕뽕! 울린다. 그리고 짜증이 나서 “비켜!!!” 라고 할때는 빠~~~앙!!! 이라고 경적을 울린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좁은 골목에서 코너링을 할때는 헤드라이트를 깜빡깜빡 켜준다. 롤리코스터 보다 더 재밌는 무료 서틀 서비스에 감사하며, 팁을 넉넉히 드렸다.

호텔 Pyramid View Inn Bed & Breakfast

호텔을 선택할 때는 고민이 많았다. 나는 좁더라도 화장실이 딸린 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넓고 깨끗하고 편안한 숙소를 원했다. 결국 우리는 위치와 편안함을 적절히 맞춘 이 곳을 선택했다.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지역이다. 하루에 26달러 정도인데, 익스피디아 멤버 할인을 받아 3박에 80달러로 예약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매우 걱정이 되었지만, 공항 무료 픽업 서비스와 스프링크스와 피라미드를 마주보는 뷰에서 무료 조식까지 생각하면 이런 가성비는 없다.

호텔직원은 아주 친절하고 좋았다. 무엇보다 아침에 스프링크스와 눈을 마주치며 먹는 조식은 잊을 수 없다. 방은 좁고 낡고 방음도 잘 되지 않지만 피곤한 몸을 누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24시간 내내 테라스에 구비된 물과 차, 커피가 있어서, 가져간 텀블러에 정수 물을 받을 수 있으니 편리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에어컨에 드라이기도 있지만 린스가 없다. 긴 머리를 가진 여자는 손가락으로도 빗어지지 않는 뽁뽁함을 감내해야 한다. 조식은 간단히 빵과 야채, 과일, 디저트, 음료, 삶은 계란과 요거트가 부페식으로 준비된다. 그리고 웨프님이 테이블마다 갓 튀긴 타아메야(이집트식 팔라펠)을 가져다 주셨다. 조식으로 간단히 먹기에는 충분하다.

어젯밤 목격한 카이로의 엄청난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위치선정을 잘한것 같다. 카이로 도시 내에서 그 인파와 교통체증을 견딜 자신이 없다.



아침마다 스팅크스와 아이컨택하며 호텔 조식을 즐기는 호사

온라인 스캠

여행일이 다가오니, Whats App을 통해서 스캐머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내가 예약한 숙소에서 연락인척하며, 내 예약번호와 이름까지 정확하게 보낸다. 예약을 컨펌하라며, 카드정보를 다시 기입하라고 했다. 수상한게 예약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컨펌하라는 것이었다. 호텔측에 익스피디아 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 호텔측에서 요즘에 이런 스캠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답장이 왔다. 까딱하면 카드정보를 넘겨줄 뻔 했었다. 이후로도 하루에 한통 이상씩 호텔 체크인에 대한 스캠 메시지가 왔다.

기자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

카이로 남서쪽 약 13km 떨어진 기자 고원(Giza Plateau)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유적지들이 모여 있다. 바로 피라미드들과 스피нк스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 한다고 믿었다. 부활할 때 영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체를 보존했는데, 그것이 미이라다. 그리고 살아있는 현생의 집은 흙으로 짓고 환생 후 영원히 거처할 장소는 돌로 지었는데 피라미드가 바로 왕들의 무덤이자 환생 후 거처다.

23,000 여개의 돌을 쌓아서 만든 피라미드는 돌 하나의 무게가 적게는 2톤에서 많게는 10톤까지 나간다. 피라미드를 쌓고 나서 마지막에는 회백색 석회암판을 붙였다. 석회암판이 햇빛을 반사해서 금색으로 빛나도록 설계한 것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며 풍화작용에 의해서 대부분은 유실되었고, 내부 벽돌들이 드러나 있다. 지금은 꼭대기에 조금 회벽이 남아 있다.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 내에는 미이라 외에도 왕들의 삶을 상형문자와 벽화로 그려놓았고 다양한 유품도 있었다. 아쉽게도 대부분은 도굴꾼에 의해서 파헤쳐졌고 도둑당했지만, 발전했던 천문학 및 의학 기술을 엿볼 수 있다. 특히 7-8주만에 완벽히 시신을 말려서 미이라로 만드는 기술은 놀라울따름이다.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는 250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인다고 할만큼 거대하다. 그 말인 즉슨 눈에 띄기 때문에 대부분이 도굴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라서 티켓창구 줄도 길고, 입장줄도 길다. 주중에는 오전 7시반부터 입장 이지만,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입장한다. 티켓부스는 오전 8시가 되어야 오픈한다. 정문과 후문에서 티켓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주말에는 현지인 및 학생들은 무료관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붐빈다고 한다.

기본 입장료는 200-400 EGP이고, 피라미드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온라인 티켓 예매를 추천한다. 쿠푸왕 피라미드 내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좁고 덥고 가파른 내부 때문에 우리는 패스하기로 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보면 덩치가 큰 남편이 좁은 복도 내부에 끼일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 미리 본 실내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통로를 파놓은 것이고 그 통로 끝에 무덤이 있는 내실은 공간만 덩그러니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가의 계곡을 갈테니 대피라미드 내부는 패스~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할 때 홈페이지 오류로 잘못된 날짜를 구입했지만,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내니 바로 새 티켓을 보내주었다. 감사, 썬유!

낮시간은 매우 덥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런을 선택했다. 조식도 먹지 않고, 7시 15분에 후문으로 갔다. 호텔에서 걸어서 1분 거리라서, 우리가 5등으로 도착했다. 입구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니, 낙타도 출근하고, 말도 출근한다. 스카프 상인들도 출근하고, 지킴이 직원들도 출근을 한다. 7시 30분이 되니 우리뒤로 엄청난 줄이 생겼다. 일찍오길 매우 잘했다. 더운 날씨와 인파를 고려하면 오픈런을 추천한다.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을 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에 거대한 스피르크스의 뒤로 피라미드가 비현실적으로 우뚝 서있다. 무료 셔틀버스가 있다고 들었지만, 너무

일찍이아서 셔틀버스도 아직 운행하지 않았다. 저기 보이는 대피라미드까지 걸어갈만해서, 스프링크스를 지나서 피라미드에 다가갔다. 엄청난 규모는 익히 듣고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실물로 보니 눈이 번쩍 떠지는 규모다. 인공위성에서도 보이고, 비행기에서도 보이는 규모를 실제로 보니, 그 사이즈에 압도된다. 이른 오전시간이기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은 동쪽면은 금색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은 회벽이 떨어져서 벽돌처럼 보이는 형태지만, 예전에는 회벽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할때는 분명 황금빛 피라미드였을것이다.

커다란 세 개의 쿠푸왕(Khufu), 카프레(Khafre), 멘카우레(Menkaure) 피라미드를 포함해 총 9개의 피라미드와 수많은 부속 구조물이 있다. 쿠푸와 카프레 피라미드르 보고났더니, 다리가 아파서 멘카우레 피라미드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갔다.

기자에 있는 대 피라미드는 고왕국의 전성기였던 쿠푸왕의 무덤인데, 피라미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동서남북을 완벽하게 가르키고 있는 위치에 사각뿔모양의 안정적인 형태의 대형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남쪽 아스완 지역에 있는 좋은 돌들을 나일강이 불어나고 물살이 거센 시기에 북쪽으로 실어와서, 흙경사를 만들어 인력으로 쌓았을거라는 이론이 가장 우세하다. 강변에 가깝게 건축물을 세우면 편하겠지만, 590만톤의 무게를 건디는 지반을 찾아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가지역이 낙점된 것이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건축물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세 개의 피라미드를 보고나면, 파노라마 뷰 포인트에 가서 모든것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그리고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스피르크스를 보러간다. 높이 22미터 길이 74미터에 달하는 사람머리에 사자의 몸을 한 스피르크스는 상상의 동물을 형상화하여 만든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스피르크스 옆에 있는 신전을 통과하면 거대한 스피르크스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만져볼만큼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몇 미터 앞에 창살로 막아두고 멀찌감치 볼 수 있게 한다.

낙타 타기

셔틀버스 타러 가는길에 낙타상인이 낙타를 타라고 꼬셨다. 피라미드 근처에 커다란 표지판으로 낙타타는 가격은 1,000 파운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흥정도 가능하다. 어찌다 보니낙타 아저씨한테 200 파운드까지 깎았다. 중국에서 낙타를 질리게 탔었다. 타도 그만 안타고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을 불렀는데, 아저씨가 오케이란다. 헉!! 그런데 남편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아저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셔틀버스를 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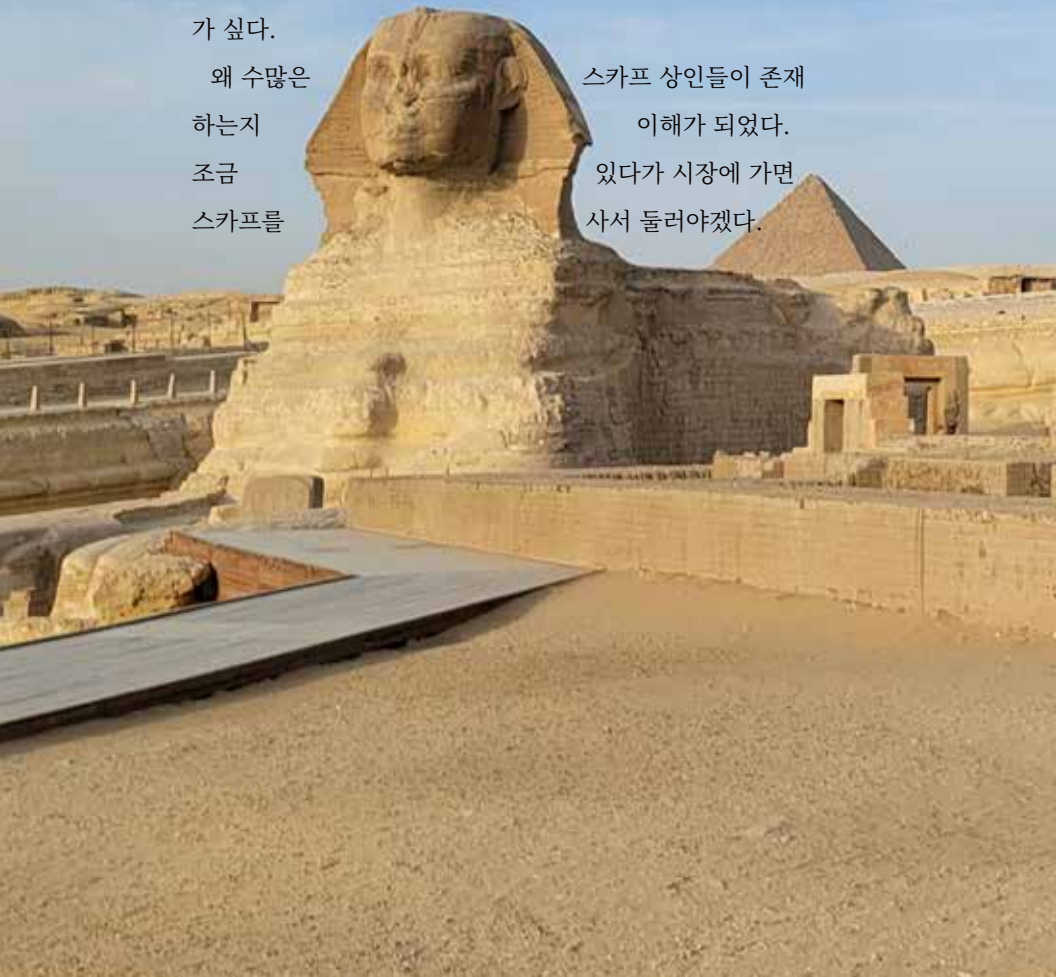


아침에 출근하는 낙타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다 돌아보는데 두시간 정도가 걸렸다. 아직 조식을 주는 시간이라서 숙소로 후딱 돌아가서 조식을 먹고, 잠시 쉬었다가 나가려고 한다. 조식을 먹는 9시반쯤 되니까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했다. 호텔 테라스에는 야외도 있고, 유리로 만들어진 실내 공간도 있다. 실내 공간에서 스텝과 눈을 마주치며 모닝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모래바람이 강해지더니 급기야 시야가 가려지고, 관광객들의 모자가 날아가고, 사람들이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의 모래폭풍이 시작 되었다. 일기예보를 찾아보니, 오늘은 모래폭풍 주의보가 떴다. 아침 일찍은 괜찮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왜 수많은
하는지
조금
스카프를

스카프 상인들이 존재
이해가 되었다.
있다가 시장에 가면
사서 돌려야겠다.



스핑크스 설화

스핑크스는 설화가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 하겠다. 이집트 제3왕조 카프라왕이 왕자시절에 꿈을 꾸었다.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한 �핑크스가 꿈에 나와서, 자기가 모래속에 파 묻혀있으니 꺼내달라는 것이었다. 본인을 꺼내주면 왕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꿈에서 깬 후에 흙더미를 파더니 진짜 거대한 돌 하나를 통으로 깎은 �핑크스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프라왕이 되었다는 것을 비문에 적고, �핑크스 앞밭들 사이에 비석을 설치하였다. 또한, �핑크스의 코가 부서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왔을때 대포로 코를 망가뜨렸다고도 한다. 하지만 문화재를 사랑하는 나폴레옹이 그랬을리 만무하여 자연 풍화로 떨어졌을거라고 추측한다.

스핑크스라를 단어는 그리스어인데, 예전에도 그리스인들이 유적관광으로 이집트에 왔었다고 한다.



칸 엘 칼릴리 시장

조식을 조금 늦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재래시장을 구경하기로 했다. 1382년에 문을 연 칸 엘 칼릴리 시장은 중동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으로, 1500개가 넘는 가게가 밀집해 있다. 흥정은 필수지만, 어렵다면 *정찰제 가게(Jordi Bazar Shop)*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렀다. 기자지역에서 칼릴리 시장까지는 자동차로 30분 거리다. 도심에 들어가고 시장이 가까워 오니, 엄청난 인파에 택시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걸어가는데 좀 더 빠를 수 있는 속도로 겨우 도착한 시장입구에서 기사님이 저기로 가면 된다고 손가락질로 입구를 알려주셨다. 아~ 사람이 엄청 많다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스카프 상인이 스카프를 흔들며 “원 달러!” 를 외친다. 1달러면 싼데? 라는 생각에 검정색 체크무늬 스카프를 샀다. 그리고 우리는 한시간 동안 인파에 밀려서 구경도 하지 못하고 길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장의 메인길을 지나갔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발 딛을 틈도 없이 시장을 꽉 매웠다.

상인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 틈도 없다. 지나가면서 본 것은 옷파는 구역, 신발파는 구역, 장식품 파는 구역, 식물파는 구역, 장난감 파는 구역, 조명파는 구역 등 현지 시장을 보았다. 내가 책이나 유튜브에서 보았던 관광객이 가는 구역을 가보지도 못했다. 사람이 좀 적어 보이는 골목길로 우선 피신했다. 휴... 여기는 좀 사람이 적은것 같은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 많은 여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가게입구에 앉아있거나, 좁은 골목에 바글바글 모여있다. 몇 걸음 더 가보니 좁은 골목

을 막고 수많은 남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금요일 점심 기도시간에 딱 걸린것이다. 남편들이 기도하고, 여자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시장을 구경한다기 보다 사람에게 밀려서 너무 지쳤다. 날은 덥고, 모래 폭풍은 불고, 인파는 많고. 시원한 커피 한잔이 간절하다. 택시를 불러서 어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만, 택시가 오지도 못할것 같고 와도 그 택시를 찾아서 타는것도 못할듯하다. 급하게 구글맵으로 카페를 찾아보니, 10분 거리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어찌어찌 틈을 비집고 드디어 시장에서 탈출해서, 카페에 갔다. 맛있는 커피를 한잔씩 하고 숨을 골랐다.

혼돈의 카오스를 나온 후 한산해진 도로에 나와서 겨우 찍은 칼릴리 시장 풍경



이제 늦은 점심을 먹으려 했는데, 시장안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코샤리 전문점 위치를 찾아보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15분 거리에 있었다. 시장을 벗어났으니,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어갔다. 공업단지 같은곳에 갑자기 코샤리가게 건물이 사장님 얼굴 현수막과 함께 띄약 보였다.



스파게티와 맛이 비슷한 건강한 식사 코샤리

코샤리 전문점 - Abu Tarek

점심으로 이집트 전통 음식, 코샤리를 맛보기로 했다. 코샤리는 서민들의 저렴한 음식으로, 파스타, 쌀, 렌틸콩을 함께 익힌 후 토마토소스, 병아리콩, 양파튀김을 올려 비벼 먹는 요리다. 우리가 간 Abu Tarek은 코샤리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건물을 올릴 정도로 유명한 음식점이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곳을 방문해 극찬을 쏟아냈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점심 시간이 지난 후여서 그런지 줄도 없고 금방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2층에 자리 잡고 앉자 젊은 서버거 주문을 하란다. 메뉴판을 달라고 하니, 메뉴는 코

사리랑 스프 두 종류라고 한다.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 하나와 코사리 두 개를 주문했다. 콩을 싫어하는 남편도 맛있게 먹을 만큼 스프의 간이 딱 좋았으며, 코사리도 맛있었다. 매콤한 토마토 스파게티 맛이였다. 역시 음식은 간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보다 양과 가격이 아주 혜자다. 총합 4달러 정도가 나왔다.

이집트에서는 음식 섭취에 조심할 점이 있다. 생수만 마시고, 반드시 익힌 음식만 먹어야 하며, 얼음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재밌는 점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문화로, 관광지 안에서는 물조차 매우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숙소에서 텀블러에 물을 담아 다니고, 양치도 생수로 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유용한게 사용한게 텀블러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시원한 생수를 텀블러로 옮겨서 가지고 다녔다. 건조한 사막기후니까 물을 엄청 마시게 된다.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숙소로 가기전에 이집트 맥주를 사기로 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무슬림 문화에서 술을 사는것도 쉽지가 않다. 정해진 소수의 가게에서만 술을 팔기 때문이다. 코사리 집에서 5분거리에 있는 Drinkis 라는 아주 작은 가게에서 현지 맥주 스텔라 두 개와 사카라 맥주를 종류별로 하나씩 샀다. 스텔라는 가벼운 라거이고, 사카라는 10도, 16도의 높은 도수의 맥주다. 총 250 파운드를 주고 4캔의 맥주를 샀다. 오늘이랑 내일 저녁에 피라미드 보면서 마셔야지~

호텔로 돌아와서 낮잠을 두시간 정도 잤다. 남편은 벌써 밤에 물집이 잡혔다. 불편한 패션 운동화를 신고 오더니 이번 여행내내 고생을 하게 생겼다. 이집트 시간은 미국 뉴욕보다 7시간 빠르다. 시차가 있을때는 중간에 잠깐씩 낮잠을 자는게 컨디션 조절에 중요하다. 낮잠을 자고 났더니, 벌써 저녁먹을

시간이다. 근처에 리뷰가 좋은 바베큐 레스토랑을 찾았다. Restaurant Pyramids 에서는 숯불에 다양한 고기를 구워 준다. 물론 돼지고기는 없다. 고기도 너무 맛있었고, 3종류의 허머스와 빵, 스프, 샐러드까지 모두 맛있었다. 서비스도 훌륭해서 팁을 드렸다.

무슬림 음식 (할랄과 하람)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유는 꾸란에서 명시했기 때문이다. 먹지말아야 하는 음식을 하람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와 돼지부속물, 술이 대표적인 하람이다. 할랄은 적합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조리된 음식들이다. 동물을 신의 이름으로 최대한 고통없이 피가 빨리 빠지게 도축하고, 처리 과정도 청결하게 해야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리 시에도 조리기구를 섞어 사용하면 안된다. 무슬림들은 할랄인증이 된 음식을 먹는데, 뉴욕에서는 할랄가이즈가 대표적인 할랄 음식이다. 이제 생각해보니 할랄가이즈에서는 닭, 소, 양고기, 팔라펠만 메뉴에 있었다!

이번 여행을 마치고, 밤 늦게 뉴저지 집에 도착했다. 우선 밤 늦은 시간이지만, 라면을 끓였다. 장거리 비행 후에는 칼칼한 국물이 땡긴다. 그리고 다음날은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생각해보니 열흘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던것이다. 오랜만에 구워먹는 삼겹살은 꿀맛이었다.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생에서 무슬림이 되기는 어렵겠다.

무슬림 기도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성소(카바)를 향해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한다. 새벽 5시쯤 해뜨기전, 12시쯤 정오에, 그림자가 길어지는 오후 3시쯤, 해가 막지는 오후 5시쯤, 완전히 어두운 밤 7시쯤 기도를 한다. 근처 사원에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아잔 소리에 맞춰서, 서있다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가 절했다가 앉기를 반복한다. 기도 중에서도 금요일 정오 기도가 중요한 기도인데, 이 때는 되도록이면 근처 사원을 가서 기도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이 기도만은 꼭 참여하려고 한다.

일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작은 기도 매트(사자다)를 깔고 기도를 한다. 뉴욕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긴 하지만, 무슬림 국가에서는 아잔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이 낯선 풍경이다. 남자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들도 집에서 혹은 여성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 단 여성들은 복장에 좀 더 엄격한데, 몸의 선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머리와 몸을 단정히 가리고 기도를 해야한다. 그리고 임신했거나 생리중인 여성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무슬림 여성의 의복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삶을 그림 시리즈로 남겼던 Jacob Lawrence 제이콥 라우렌스의 작품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다. 왜 여성들을 곱추처럼 그렸을까. 혹은 사람들의 형태가 조금 이상하는 것이었다. 막상 아프리카에 와보니, 그의 그림이 얼마나 현실고증을 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엄청난 짐을 등에 매고서 차도르를 입으면 곱추처럼 보이는 것이었고, 어두운 갈색과 푸르지 못한 하늘색은 아프리카의 색이었다. 그러면서도 노랑 빨강 초록의 천연색을 쓰는 것도 아프리카 문화 중 하나였던 것이다. 서로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환경에 노출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의 폭에 한계가 있음을 이번 여행을 통해 또 한번 실감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검은 긴 생머리를 풀고, 패턴이 요란한 그래피티가 그려진 겹옷을 입고, 선그라스를 끼고 다녀서 그런것 같다. 아스완에서 택시 아저씨가 내 긴생머리가 예쁘다고 하셨는데, 여행 중에 본 대부분의 여성은 곱슬머리였다. 그리고 선그라스를 끼고 다니는 여자도 못봤던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복장이 그 문화에서는 다소 파격적이었겠다.



제이콥 로렌스 작품스타일로 시가 그린 이미지. 최근 몇년사이에 시의 발전으로 많은것이 편리해졌다.

히잡

머리카락과 목만 가리는 복장. 가장 흔한 스타일로 선진화된 직업여성 및 학생의 복장. 이집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복장.

니캅

눈만 가리고 전체를 다 검은색 천으로 가리는 복장. 파키스탄에서 주로 착용

차도르 /아바야

검은색 천으로 얼굴과 손발만 빼고 몸 전체를 느슨하게 덮는 겉옷 형태.

부르카

몸 전체를 가리고 눈까지 검은 망사천으로 가리는 극단적 의상.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음.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 GEM)

온라인 티켓: 730 EGP, 시간대별 예약 가능 (GEM 공식 사이트)
운영 시간: 월, 화, 목, 금, 일: 9am - 6pm 수, 토: 9am - 9pm

우리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자 오전 11시 타임 슬롯을 예약했다. 스프링크스와 눈맞춤하며 여유롭게 조식을 먹었다. 조식을 먹으면서 양가 어머니께 화상전화로 피라미드를 보여드렸다. 구경이지만 찾아뵙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는 철없는 자식들이지만, 항상 우리의 행복을 응원해시는 고마운 분들이다.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박물관으로 향했다.

GEM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전문 박물관으로, 100,000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중 20,000점 이상은 최초 공개 전시다. 박물관 건물은 세 개의 피라미드가 이루는 선의 접점에 자리 잡아, 박물관에서 피라미드까지 이어지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이집트 정부의 빅 픽처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이집트 박물관이며, 엄청난 양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몇시간내에 모든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뉴욕에 살면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수십번을 갔지만, 아직도 다 못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요전시와 꼭 봐야할 리스트를 정리하고 예습을 했다.

카이로 시내에서 기자지역으로 가는 고속도로 양쪽으로 엄청난 광고판들이 줄을 지어서 박물관을 홍보하고 있다. 22년 동안 1조 3천억원 (10억 달러) 를 들여서 완공한 박물관이 오픈했으니, 얼마나 기쁠까. 정말로 풍악을 울릴만큼 기쁜 일이다.

박물관은 개발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 근처는 도시개발 중이라서 황무지같다. 주차장을 지나서 티켓을 스캔하고 입구를 지나면, 저~ 멀리에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보인다. 낮고 아주 길쭉한 이 건물은 엄청난 규모로 입장객을 압도한다. 박물관 건물 입구는 피라미드를 연상케하는 삼각형인데, 입구를 둘러서 고대 상형문자들이 빼곡하게 쓰여있다. 이 글자들은 역대 왕들의 이름을 고대어로 써 둔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름을 쓸때는 긴 타원형 테두리 안에 쓰는데 장식적 효과가 뛰어나다.

건물 입구를 바라보고 건물 밖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최초로 공중에 떠있는 오벨리스크다. 공중에 띄워놓은 이유는 바닥에 적인 람세스2세의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예전 왕들은 선왕들의 유적이거나 업적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는데, 웬만한 것에는 람세스 2세의 이름이 깊게 패여있다. 신전을 지어도 추가적으로 건축을 하고 여기저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선왕이 맘에 들지 않으면 선왕의 얼굴이 그려진것을 파내기도 했다. 이번 이집트 여행에서 가장 많이 볼 유적은 람세스 2세의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오벨리스크다.



박물관 앞마당에서 보이는 건물 입구와 떠있는 오벨리스크

건물에 들어가면 그랜드홀에 커다랗게 서 있는 석상도 람세스 2세의 동상이다. 붉은 화강암 하나를 통으로 깎아서 만든 이 석상은 높이 11.35미터, 너비가 1.8미터, 83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이집트 수도였던 멤피스의 피타신전 앞에 세워졌던 이 석상은 복원을 거쳐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 거대한 석상이 통째로 이 건물에 들어오는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부분 분해해서 석상을 옮겨 세우고, 건물을 마감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해지지 않는가.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는 신왕국 19왕조의 3대 파라오다. 람세스의 이름은 라 (태양의신)에 의해 태어났다고 라-메스-시스라고 불렀다. 26세에 즉위하여 64년간 통치 후 90세에 죽었다고 알려졌다. 8명 이상의 아내 사이에서 100명이 넘는 자식을 낳았으며, 누비아까지 영토를 넓힌 왕이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망하고 영향력 있는 파라오였으며,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한명이다. 아버지는 세티 1세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외교를 강화했으며, 아부심벨 신전, 카르낙 신전, 라메세움등 위대한 건축물을 세웠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왕을 람세스 2세로 추정하기도 한다. 살아 있을 때도 신처럼 숭배되기 위해 건축 조각을 활용하여 이름을 남겼다.

고대 이집트의 3대 미녀 중 한명이 네페르타리 (기원전 1290년 - 1255년)의 남편이기도 했다. 아스완에 있는 아부심

벨 신전 옆에 네페르타리의 신전을 지을 정도로 사랑꾼이었으며, 아내와 자녀들을 자신의 석상에 꼭 함께 조각해서 넣을만큼 가정적이었다.

람세스2세의 무덤은 룩소르에 있는 왕가의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그의 미이라는 카이로의 네셔널 이집트 박물관(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NMEC)에 전시되고 있다. 람세스2세의 미이라는 팔이 x자로 가슴에 붙어있지 않고 하늘에 손이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버지 세티1세 처럼 머리카락이 붉은색이고, 키가 큰 편이다. 미이拉到 고풍이가 생겨서 1976년에 프랑스에 보내져서 치료하였는데, 신원 보증을 위해 여권이 발급되었다. 고대 이집트 왕중에 현대 여권이 있는 유일한 왕이다. 당연히 왕의 신분으로 프랑스에 간것이기에 국가원수에 준하는 최고 예우를 받으며 군사의 전속이 입국하였다.



박물관 로비에 설치된 람세스2세의 입상

람서서2세의 석상을 보고 왼쪽의 건물로 가면, 오른쪽에 에스컬레이터가 구비된 중앙 계단이 펼쳐진다. 중앙 계단을 따라 쪽 늘어진 석상들은 역사 속 왕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왕의 석상은 한두개가 아니다. 마치 스프링크스를 일렬로 세워서 신전과 피라미드를 지키게 한 것 마냥, 왕들의 석상을 2층 전시실까지 디스플레이 하였다. 그리고 스프링크스와 여러가지 주요 기둥과 비석들이 3층 전시실까지 진열되어 있다. 전시를 보고 내려오면서 하나씩 다시 보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까지 쪽 올라갔다.

3층으로 가서 전시실로 들어가면, 전시를 세로축을 따라 선사 및 고왕국시대- 중왕국시대 - 신왕국시대 - 후기 및 그리스 로마 시대로 구분하여 역사적 시간순으로 층을 반층씩 내려가도록 배열하여 디자인했다. 그리고 가로축으로는 사회, 왕권, 신앙이라는 주제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동일한 시대 안에서도 다른 문명적 층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반층씩 내려가면서 시대가 바뀌는 전시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시도였고, 시대와 주제를 통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큐레이팅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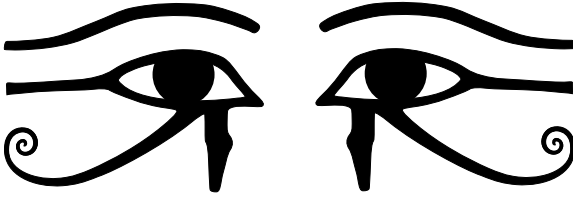


전시장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도면 (동선 확인 후 전시 관람하시길!)

고왕국시대는 유물의 훼손도가 심하긴하다. 하기야 5천년이 넘는 유물도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역설적으로 5천년 전에 만든 섬세한 나무 조각이 색을 여전히 유지한채 남아있는것이 너무 신기하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매우 건조한 사막기후 덕분에 박테리아와 곰팡이 조차 활동하지 못해서 이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다. 그 때 북극에서는 메머드가 살았고, 청동기 시대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석기시대였다. 이 때가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시대다. 못도 없던 시대에 나무와 돌로 많은것을 만들어 내었다. 참으로 경이롭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보면서 더 놀라운것은 복원팀과 큐레이터들의 집착과 집념이다. 조각조각 부서진 유물들을 마치 퍼즐조각을 맞추듯이 하나씩 찾아내서 조각을 맞춰내고 있었다. 아직 찾지못한 조각들은 빈공간에 예상 드로잉을 해가면서, 아직도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워낙 방대한 유물이 있고, 반복적 내용과 형태가 많아서 퍼즐 맞추기가 가능 했겠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학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 시대의 관은 나무관이 많았는데, 관 오른쪽 측면에는 호루스의 눈 모양이 일률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 곳에 머리가 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미이らが 관 안에서 이 눈을 통해서 바깥세상을 복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관광 상품에 늘상 나오는 호루스의 눈이 여기서 시작된것이 분명하다.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이 호루스의 눈을 좀 더 살펴보자.



호루스의 눈

호루스는 매의 머리를 가진 신이다. 하늘과 왕권을 상징한다. 그의 아버지 오시리스는 동생 세트에게 살해된다. 호루스가 성장해서 세트 삼촌과 왕위 쟁탈을 위해 싸우다가 한쪽 눈을 다치게 된다. 달의 신 토트(따오기머리를 가진 신)이 치료를 해주면서, 호루스의 눈은 상처 - 회복 - 질서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로고처럼 디자인 된 이 호루스의 눈을 관에 그릴때는 쌍을 맞춰서 그렸다.

석조각에 새겨진 문자들은 글자라기 보다는 그림에 가깝다. 색도 입히고 정교하게 조각한 것이 현대에 보아도 너무 예쁘다. 전시장을 잇는 커넥팅 구역에는 고시대의 삶과 유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비디오 및 영상으로 시각자료를 상영한다. 이 시각자료들이 엄청 고퀄리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감상해보길 바란다.

중왕국 시대에 가면 더욱 섬세해지고 다양하고 귀여운 유물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나 여성의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섹션과 섬세한 은 세공품을 볼 수도 있다. 이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훨씬 귀한 시기였다. 그래서 흔한 금제품이 아닌, 귀했던 은그릇과 은제품들을 전시장에 들여두었다.

중왕국시대에는 안정적인 왕권과 문화의 발전이 컸던만큼, 왕족들만이 아닌 고위관직의 삶의 형태 및 조각들도 볼 수 있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신관들의 조각인데, 무릎을 세우고 쪼그려 앉은 형태의 석조각이 많이 보인다. 이 조각상의 옷에는 글이 적혀있다. 이 조각들은 신전앞에 놓던 신관의 모습을 한 조각으로, 조각이 끊임없이 신에게 기도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상형문자

이쯤 되면 글자들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졌다. 요즘은 문자들이 많이 파악이 되어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가 보는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들은 의식용으로 썼던 특별 문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은제품이나 파피루스에 고대어로 된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여행에서 남편과 은반지를 맞췄다. 이집트는 은세공으로도 유명하기에 은제품 하나를 사려고 했고, 더구나 서로의 이름을 상형문자로 새긴 반지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파피루스 종이에 장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상형문자로 그려주는 아티스트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적힌 책갈피도 주문했다. 어떤 알파벳은 새도 있고, 어떤 알파벳은 뱀도 있다. 형태가 있는 글자도 있고, 도형이 있는 글자도 있다. 이제는 알파벳별로 어떤 문양이 있는지 차트가 제작되어, 글을 읽고자 마음먹으면 공부해서 읽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AI에게 글을 가르치고 읽고 해석하라고 하면, 조만간 여행지에 가서 즉석에서 글을 읽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사에 쓸 가축을 도축하는 장면의 미니어처들

신왕국시대가 되면 여러가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미니어처들이 인상적이다. 부장품이었을 미니어처들이 아주 세세하게도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위해 소나 가축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은 조각들도 있고, 물을 길거나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모습의 조각들도 있다. 10센티미터 남짓의 작은 미니어처 조각에도 색을 입히고 정성을 다한 만든이의 노고가 보이는데 하다. 특히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얼굴이 인상적인데, 그녀의 눈은 괴이할만큼 길게 찢어져있다. 이집트 벽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특징중에 하나인데, 얼굴과 몸통과 발은 측면에서 본 형태로 그리고 팔과 다리와 눈은 정면에서 본 형태로 그린다. 이런 그림을 조각으로 만들어 내면 저런 형태가 되겠다. 좀 더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만들지 못하여서 조금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었지만 좋은 시도였다.

이렇게 시대별 풍습별 고대 이집트 유물을 보고 마무리가 될즈음에 그 유명한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투.탕.카.멘!! 전시안내를 따라서 투탕카멘의 소장품을 훑린듯이 보러간다. 그런데 이미 고대 유물을 보느라 두시간이 훌쩍 지났다.

미술전공이 아닌 남편은 이미 너무 피곤해서 지쳐버렸다. 잠시 전시장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서 달달한 초콜릿도 먹고 목도 축이고 조금 휴식을 취했다. 여행지에서 꼭 가지고 다닐것은 당이 떨어졌을때 급속 충전해줄 수 있는 간식거리다. 항상 구비해서 다니는 작은 초콜릿과 사탕덕에 당을 충전했다.

자~ 이제 조금 쉬었으니 투탕카멘씨를 만나볼까? 으이차~

투탕카멘

투탕카멘은 18왕조의 파라오이고, 10세부터 18세까지 즉위 중에 사망한 어린 왕이다. (기원전 1334년- 1325년) 그는 스스로를 아몬신 이라 불렀고, 그의 묘는 1922년 왕가의 계곡에서 도굴의 피해가 거의 없이 온전히 발견되었다. 고대시대에 한번 도굴이 되었으나, 그 이후 봉인되어 보존되었다. 내세울 만한 업적도 없고, 재위기간도 짧았기에 그의 무덤은 파라오의 무덤치고는 초라해서 온전히 남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마스크와 황금관, 황금마차를 비롯한 다양한 황금 물건들과 사후세계에서 쓰도록 준비한 물건들까지 총 5,398 점의 유물이 쏟아져나왔다. 기록과 자료가 없던 그는 묘가 발견되고 나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근친혼으로 태어났기에 선천성 기형이 많았고 면역체계가 약했으며 열대열원충 (말라리아의 원인 충)에 감염과 다리골절로 사망하게 되었다.

투탕카멘의 가장 중요한 유물로는 황금 마스크와 황금마차, 황금관등이 있다. 우선 황금마스크는 미이라를 만들고 얼굴에 씌워뒀던 것이다. 황금마스크에 파랑색 줄무늬 두건을 쓰고, 이마에 코브라와 독수리가 함께 있는 관을 쓰고 있다. 화려한 파랑과 빨강색 가슴장식을 한 마스크다. 그리고 그의 몸을 띠처럼 감싸고 있는 금관 장식들도 엄청 화려하다. 현재 투탕카멘의 미이라는 최초 발견되었던 룩소르의 왕가의 계곡에 안치되어 있다. 미이라와 석관을 제외한 모든 유물들은 GEM으로 옮겨와서 전시중이다. 이집트 왕들의 시신은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겹겹히 케이스에 들어있다.

미이라를 아마천으로 7겹 씌운 후에 황금 마스크를 씌웠다. 그리고 부적과 황금 장식 띠로 한번 더 마무리 한 후에, 순금 관에 미이라를 넣었다. 그리고 그 순금관을 보석으로 치장된 금박된 목재관에 넣고, 그 목재관을 또 다른 대형 금박 목재관에 넣는다. 3겹의 금관을 석관에 넣은 후, 네 겹의 황금 신전(금방)에 다시 넣는다. 관 근처에는 아누비스가 장식된 함도 넣고, 다른 부장품들도 함께 둔다. 실제로 유물들을 보면 얇은 금박의 수준이 아니라 두께가 꽤나 있는 금박과 장식으로 마감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미술관이지만, 여기있는 금만 팔아도 수익이 나겠다 싶을만큼 금이 차고 넘친다. 부장품으로 들어있는 장신구와 샤부티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고 화려하다.

흥미로운것은 다양한 지팡이와 램프였다. 투탕카멘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였기에 병약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기형이었다. 그래서 어릴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살았을거라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 - 화려한 채색과 패턴이 인상적이다

추측한다. 그래서 그의 다양한 지팡이와 형태들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알라바스터 램프도 아주 좋았다. 룩소르 지방의 특산품이었던 알라바스터를 얇게 깎아서 램프로 만들었다. 그 안에 불을 켜면, 알라바스터 표면의 그림이 보일 수 있게 장식을 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부티(415개의 미니어처 일꾼모양의 부장품)와 장기를 넣는 카노푸스 단지도 아주 잘 만들어졌다. 또한 투탕카멘의 황금의자와 발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발판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근처 적국의 왕들의 모습이라고 한다. 근처 적국의 왕들을 발 아래 깔고 있는 형태를 만든 가구다. 혼돈을 짓밟고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인 파라오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

투탕카멘 전시실은 검은색벽에 어두컴컴한 방이다. 스팟라이트 조명으로 유물들을 비추니, 황금빛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빛난다. 뉘을 놓고 유물만 보면서 걸으면, 발을 헛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계단이 직각형태가 아닌, 대각선 형태로 되어있기에 발을 헛딛기 쉽상이다. 바닥도 돌이라서, 발 한번 잘못 헛딛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되었다.



투탕카멘의 화려한 황금관 - 장인들이 고생 꽤나 했겠다.

이제 전시장을 나와서 중앙 계단을 통해서 아까 다 보지 못했던 파라오의 석상들과 석관 및 기둥들을 살펴보며 내려간다. 이미 완전히 지친 남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다양한 석상을 관람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1층으로 향했다.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오면 맞은편은 샵들과 음식점이 있고, 왼편에 야외공원이 있다.

왼편 야외공원으로 걸어가면, 정면에 커다란 별관 건물이 나타난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중에 가장 큰 쿠푸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돛단배가 이 건물에 전시되고 있다.

피라미드를 보는 중에 근처에 커다란 석회암 돌들이 줄지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적이었다. 땅속에 태양의 돛단배를 묻어두고서, 그 위에는 커다란 석회암 돌들로 덮어서 무덤의 뚜껑처럼 마감을 했다. 1954년 고고학자 카말 엘 말라크가 피라미드 주변에서 너무 정밀하게 맞물린 석회암돌들을 의심해서 하나를 들어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발견한 4,500년 된 삼나무로 만든 배가 1200 여개 조각으로 분해되어서 정리되어 있었다. 복원가 야흐메드 유세프 무스타파가 14년동안 43미터에 달하는 배를 조립하였다. 무스타파씨의 의지가 대단하다.

이렇게 조립된 배는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전시장 자체가 반층정도 올라앉아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이유는 건물 입구 앞에 반지하통로를 만들고, 뚜껑으로 덮였던 석회암 돌들을 전시하기 때문이다. 관람자들이 이 석회암 뚜껑이 있는 반지하통로를 지나며 석회암의 바닥면을 관찰하고, 지하 통로 옆 벽에 설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지하 통로를 지나서 한 층 올라가면 태양의 돛단배가 전시되는 특별관에 진입한다.



쿠푸의 태양의 돛단배

라 (태양의 신)가 은하수와 사후세계인 두아트를 다닐때 타고 다니는 배인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나면 사후세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온다. 오는 길에 절대 악을 상징하는 아뽽을 만나 매일 싸우는데, 종종 싸움이 길어지면 일식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드시 태양은 떠오르기 때문에 라는 항상 승리한다. 이집트 4왕조 쿠푸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1954년 발견된 이 배는 나일강에서 직접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며, 복원되어서 전시되었다.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선박인데, 항해용이 아닌 부장용이었으며 쿠푸의 관을 실어왔을거라 추정한다. 놀라운 것은 쇠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흙과 밧줄로 조립하여 배를 만든 것이다. 부장품으로 피라미드 근처에 묻어 둔 것을 찾은 것이다.

두번째 배는 최근 2000년대에 발견되었고, 2011년부터 단계적 해체를 시작하였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와세다 대학팀이 조심히 해체를 하고 있다. 현 2026년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박물관에서 조립을 시작할 예정이며,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물결모양의 원목 벤치와 원목 기둥받침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3층 높이의 건물에 커다란 배를 매달아 전시하고 있다. 하나는 완성된 배이고, 창 가쪽의 다른 하나는 앞으로 복원을 완성할 배의 골조를 잡아둔 상태다. 길쭉한 나선형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태양의 돛단배를 바닥부터 옆모습까지 다양한 각도로 관람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다. 천정에서 내려오는 물결을 상징하는 스틸의 인테리어도 물결을 상징하는 천정 라이팅도 모두 세련되고 완성미 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흙장부 끼우기 기술과 밧줄로 묶어서 고정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배를 만들었다. 거기에 있는 밧줄이 아주 튼튼하고 색도 깨끗해서 현대의 밧줄을 대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전 고대 밧줄을 복원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아마 혹은 야자 섬유를 굵게 꼬아서 만든 밧줄은 의식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지하에 오랫동안 공기의 노출없이 묻혀있었기에 보관상태가 좋았던 것이다.

건물 1층으로 내려와서 건물 내벽을 따라서는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과 복원에 대한 사진설명이 전시되고 있다. 예전부터 일본이 복원과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도 발전하였고, 고고학에서는 권위가 있다. 이 박물관에 가면 벽면에 중국어와 일본어가 있는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전문 복원팀이 박물관에 상주하면서 연구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한다. 한국에서는 애굽민수라는 광민수 소장이 거의 유일한 이집트 고고학 학자라고 한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광민수 소장이 출현한 유튜브와 방송을 모두 찾아보고 공부하였다. 이집트 고고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광민수 소장님께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태양의 돛단배를 보고나면, GEM 에서 현재 볼 수 있는 전시는 다 본것이다. 식당과 쇼핑가가 있는 건물의 2-3층은 아직 오픈하지 않았지만, 계속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듯 하다.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과 프랑스에 많은 이집트 유물이 건너가 있는데, 그들이 유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국의 박물관에 보관하는 이유는 이집트가 유물 관리를 잘 못해서 세계적인 문화재를 보존하지 못할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신식인 박물관을 개관한 마당에 그들이 약탈해간 유물을 돌려줘야 하지 않나싶다.

유네스코 1970 조약

www.unesco.org/en/fight-illicit-trafficking/about

불법 문화재 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협약으로 불법 반출 문화재를 거래하면 안되고, 원산국이 반환을 요구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적인 제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돌려주는 추세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2024년에 천년된 스텐딩 시바와 무릎꿇은 여인 청동 조각상들을 태국에 자진해서 반환하였다.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라도 출처야 문제면 돌려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여서 돌려주는 추세다. 현재 이집트에서 요구하는것은 네페르티티 흉상 (독일), 로제타 스톤 (영국), 텐데라 조디악 (프랑스)이다.

박물관 안에는 작은 샵들도 있고, 커피숍과 음식점들도 여러개가 있다. 이집트까지 와서 미국에서 늘상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싶지 않다. 조금 참았다가 맛있는 현지식을 먹겠다는 생각이다. 샵들은 작은 기념품을 살 수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너무 비싸다. 주얼리 가게들도 있는데 작은 진주가 있는 귀걸이가 예뻐서 가격을 물었더니 1,200 이란다. 달러로 30달러가 채 되지 않기에 살까생각이 들자마자, 점원이 1,200 달러란다. 뒤도 안돌아보고 나왔다. 다른 샵들도 엄청난 가격들이었다. 심지어 미술관샵도 작은것을 뭐라도 보면 다 몇만원씩이다. 시장에서 파는 대강의 가격을 아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미술관 가격에 살 수가 없었다. 그래도 쾌적하고 디스플레이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물건의 종류는 많지가 않다.

이렇게 박물관을 세시간을 꼬박 보았더니,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하다. 쉽없이 핸드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자료도 찾고, 사진도 찍다보니 배터리가 금방 방전된다. 보조배터리를 가져와서 충전하지만 이렇게 박물관 관람을 한번 하고나면 배터리가 항상 부족하다. 배터리 충전도 할겸 점심도 먹을겸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옆 호텔에 있는 리뷰 좋은 테라스에서 맛있다는 망고주스도 마시고, 간단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바라보며 점심을 먹었다. 어제 아침에 날이 좋을때 피라미드를 본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래바람이 거세다. 다시 한번 아침 일찍 대기가 안정할때 피라미드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점심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예약해두었던 나일강의 펠루카를 타러갔다. 펠루카는 작은 돛단배인데, 나일강에서 유유히 떠다니면서 석양을 보고자 프라이빗 펠루카를 예약해두었다. 마침 이 날이 발렌타인데이여서, 아주 로맨틱한 저녁이 될거라 꿈을 꾸며 나일강변으로 향했다.

펠루카를 타러 선착장에 잘 도착했는데, 우리처럼 선셋을 보기위해 많은 사람이 몰렸다. 선착장 주인이 배를 불러서 사람들을 태워주는데, 우리 차례가 되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다른 독일에서 온 커플과 합승을 하라고 하신다. 합승이 싫으면 한동안 또 기다리라고 한다. 선셋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용한 젊은 커플과 합승을 했다. 문제는 무동력배인데, 바람도 물결도 없을때는 선착장 주변에 그냥 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맨발의 선장님이 지나가는 모터보트에게 밧줄을 던져서 끌어달라고 한다. 모터보트의 기름냄새를 맡으며 나일강 중간까지 갔다. 닻을 내리고 해지는 석양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하고 좋다고 하고 싶었지만, 관광지 답게 모터보트에 탄 그룹들은 노래를 틀고 춤을 추고 현란한 반짝이는 불쇼를 한다. 오. 마이. 갓.

조용하고 평온한 나일강의 저녁을 꿈꿨지만, 현실은 나일강 관광보트 안에서 춤추는 어른들을 구경하는꼴이 되었다. 뭐. 그래도 배를 타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다시 물으로 돌아갔다. 돌아갈때도 동력이 없는 펠루카는 지나가는 모터보트의 도움으로 선착장까지 갈 수 있었다. 카이로에서 펠루카를 타는것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펠루카나 배를 타고 싶다면 유속이 빠르고 고요한 아스완에서 타는 것을 추천한다.



해질녘 나일강 위의 펠루카

배를 타고 저녁을 먹을겸 어제 실패한 시장을 다시 가기로 했다. 택시를 불러서 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퇴근시간이 걸렸는지 어쨌는지 15분 거리를 45분이 다 되도록 근처도 못 갔다. 결국에 택시 기사님께 그냥 숙소로 가자고 목적지를 바꾸었다.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결국 택시에서 두시간이 나 앉아서 창밖구경을 하였다. 막히는 길을 싫어하는 기사님이 멀고먼 고속도로로 돌아돌아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셨다. 이 날 카이로의 지옥의 교통체증을 경험하였다.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을정도였다. 배고픔을 안고 어제 먹었던 바베큐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했다. 숙소에 가서 맥주와 함께 피라미드를 보며 간출하게 하루를 마무리 하기로했다. 긴 하루끝에 마시는 맥주 한잔은 참 달콤하다. 개인적으로 독한 맥주보다는 가벼운 라거가 훨씬 맛있었다. 내일은 새벽 비행기를 타야하니 일찍 취침해야 했다.

나일강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6,6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이를 가진 강이다. 수원지는 두 곳인데, 부룬디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한 두 강이 수단공화국에서 합쳐져서 이집트를 가로질러 흐른 후 지중해로 흘러들어간다. 우리가 보는 지도를 생각하면 북쪽 (카이로지역)이 상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상류는 수단이 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흐른다. 물의 양이 많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채석장이 있는 아스완지역에서 카이로 지역까지 강물에 배를 띄워서 돌을 나를 수 있었다.

여기서 재밌는것이 물살은 빠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지만, 바람은 북동 무역풍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분다. 그래서 나일강에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갈때는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가고, 북쪽으로 갈때는 돛을 접어서 물살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다. 결국 강물은 지중해를 만나는 지점에서 삼각주를 형성하며 유속이 느려지고, 물도 탁해진다.

과거에는 나일강이 6월쯤 한번씩 범람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에 수원지에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집트 인들은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피라미드를 짓는다던지 다른 건설업을 하면서 지냈고, 강물이 범람하면서 쓸고 내려온 비옥한 토양 덕분에 농사도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일강은 이집트인의 생명수이자 문명의 근원지가 된것이다.

현재 이집트 인구의 95프로가 나일강 유역에 모여사는데, 이 나일강 유역은 이집트 전체 국토 면적의 5%밖에 되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나일강과 그 근처만 초록색이고, 나머지는 갈색인 사막지대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즘은 관개수로가 발전해서인지, 물을 끌어서 사막지역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씬없이 주어야 곡물이 자랄 수 있기때문에 콤팩트형태의 급수시설을 갖추고 농사를 짓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동그라미 초록 농경지가 줄을 맞추어 있는것이 인상적이다.

어린 거지 & 싸움

무슬림 국가여서 도둑은 적지만, 제3국인만큼 거지가 많다고 들었다. 길거리에 난민같은 사람들과 거지같은 아이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구걸을 하거나 말을걸지는 않았다. 그런데, 음식을 사서 레스토랑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음식을 나눠달라고 한다. 5 - 6살이나 되었을까. 우리가 먹을 저녁이어서 안된다고 하고 그냥 지나온게 끝내 마음에 걸린다. 그냥 줄 걸 그랬다.

저녁 먹으러 걸어가는 길에 어떤 30대정도 되는 여성이 꼬마 남자 아이를 잡아 패고 있었다. 말을 오죽이나 안듣는 아들인가보다 하며 지나가는데, 급기야 아이를 넘어뜨려서 발로 밟기까지 한다. 그리고 아이는 쪼로록 도망가면서 눈물콧물 범벅으로 여자에게 모래를 뿌리고 소리를 지른다. 패거리의 꼬마 아이들이 여자를 애워싸고 소리를 지른다. 멀리서 지켜보던 남자가 여자에게 와서 여자를 나무란다. 여자는 모두

에게 소리치고 욕하면서 갈 길을 간다. 엄마가 아니었다보다. 모르는 사람이 어린 아이를 저렇게 무참히 때렸다보다. 충격적이다.

카이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싸움 구경은 한번 이상은 하게 되는것 같다. 그것도 그럴것이 너무 위험 천만하게 운전을 하고, 신호등없이 길을 건너고 하다보니 싸움이 날 수 밖에. 대부분은 고속도로에서 먹살을 잡고 아저씨들이 싸우고 있었다. 말리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다. 뭐가 그리 화가나는지 서로 발길질을 하고 욕을한다. 대도시에 사는것은 참 팍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웃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만났지만, 더운 날씨에 피곤하게 일하고 맘같이 앓은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도 있겠다. 여하튼 많은 인구만큼 거친 몸싸움 구경도 흔하게 할 수 있다.



AI 이미지로 구현한 평범한 이집트 길거리 풍경

The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이집트 문명 박물관

온라인 티켓: 500 EGP 운영 시간: 매일 9am - 4pm

아스완에서 오전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로 돌아왔다. 카이로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가는 국제항공이 저녁 8시 40분에 있다. 5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왕족의 미이라를 보기 위해서 이집트 문명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트 체크 및 가방을 무료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배낭을 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입장료 500 파운드를 카드결제하고 건물내로 들어가면 넓고 쾌적한 로비가 나온다. 왼편에 가방을 맡기는 곳에서 짐을 맡기고 번호표를 받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티켓을 스캔하고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인다. 여기가 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 왕족들의 미이라가 모여있는 곳이다. 사진촬영이 엄격하게 금지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족의 순서대로 이렇게 많은 미이라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곳은 단순히 미라를 나열한 공간이 아니라, 신왕국의 정치·군사·종교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통과하는 통로가 될지도 모른다.

낮은 조도와 엄숙한 분위기가 살아 있던 왕들의 권력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어두운 방 중앙에 미이라가 유리관속에 누워있다. 벽에는 그의 이름과 설명이 적혀있다. 어떤 미이라는 관도 함께 전시하기도 한다. 몇천년

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이라는 머리카락과 이빨과 손톱, 발톱이 그래도 보존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피부색은 갈변해서 더 검어 보였던것 같지만, 피부색이 밝은 미이라도 있었다.

세티1세의 혈동인 람세스2세와 세티2세와 같은 혈통들은 골격이 컸다. 뼈와 가죽만 남은 미이라지만, 키와 골격이 장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혈통을 가진 부자 지간인 그들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여왕이나 공주의 미이라는 아주 작았다. 눈대중으로 보았을때, 150센티 초중만이 되려나 싶을만큼 키가 작았다. 여성파라오였던 하트셉수트의 엄지 손톱이 아주 길었고, 피부가 얇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티에왕비는 아주 조그마한 여성이었던 듯 하다.

미이라들은 뇌를 꺼내면서, 눈도 파내나보다. 눈도 없다. 모든 구멍은 아마천으로 다 막혀있다. 붕대로 어깨선까지 동동 감지만, 손가락과 발가락 끝은 남겨두었다. 어떤 미이라는 머리가 깨져있었다. 둔기로 썬게 한대 맞은것 같은데, 참 안되였다. 컨디션이 좋지 못한 미이라는 관람객이 가까이 갈 수



왕족의 미이라를 보러 들어가는 지하 전시장 입구

없도록 멀리두고 습도계까지 설치해두었다. 가까이 볼 수 있는 미이라들은 대부분은 온도계만 유리관속에 들어있었다.

왕들의 업적과 통치기간을 보면, 생각보다 재위기간들이 짧았다. 몇 년 통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왕가의계곡에 가보면, 많은 왕들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다가 짧은 통치기간 때문에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 66년이나 통치한 람세스2세와 22년이나 통치한 하트셉수트가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재위 기간이 긴 만큼 건축과 같은 업적을 더 많이 남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 왕족들은 알았을까. 영원을 꿈꾸면서 많은 신전을 짓고, 무덤을 만들고, 기도를 했지만, 몇천년 후에 그들의 고귀한 몸이 수 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품이 될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있었다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자가 죽어서 이렇게 관광 상품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적어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살거라는 것은 틀린 믿음이 아니었을까. 어느 먼 훗 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데, 미이라들도 다시 살아나려나. 그럼 무서운 강시와 좀비 이야기가 되는건데...

왕가의 미이라를 보고나면, 1층에 와서 이집트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간단히의 복과 생활양식을 볼 수 있는 전시장이다. 이미 GEM에서 방대한 양의 유물을 보고 왔지만, 다시보니 또 신기하다. GEM에서는 그리스 로마시대까지의 유물을 보여주는데, 이 박물관에서는 그 이후의 콥트교와 비잔틴시대를 거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고 이슬람 왕조가 있는 후, 오스만 제국 시대를 거쳐

근대 이집트의 아버지인 무하마드 알리의 초상화까지 연결해서 전시로 보여준다.



콕트교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모자이크 작품

중앙 전시장을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특별관에서는 텍스트 일 전시를 하고 있다. 천의 역사와 염색하는 기초재료 및 복장문화를 설명해주는 전시다. 2층까지 이어진 이 전시는 근대 공주와 왕족들의 의상 및 호화로운 장신구 및 사치품도 전시로 보여준다. 흥미로운 전시 주제이지만, 배고프고 피곤하면 눈에 더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있는 리뷰가 좋은 카페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박물관은 지하 2층에는 각종 기념품 샵이 입정해있고, 지하 1층에는 카페와 작은 기념품샵이 있다. 카페에서 파는 음식과 커피 모두 맛있었지만, 서비스는 나빴다. 4시에 가게가 닫는다면, 3시 45분부터 그릇을 뺏어가듯 챙겨가고 나가라고 했다. 운없게 성질 고약한 웨이트리스가 걸린것이겠지만, 전망 좋고 맛있는 카페였는데 기억이 좋지는 않다.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가격이 적혀있지 않다. 사람을 봐가면서 가격을 부르는것 같다. 룩소르에서 50파운드에 샀던 작은 동전

지갑을 450 파운드라고 했다. 그냥 웃고 지나갔다. 지하 2층에 샵들은 조금 가격이 괜찮고 물건도 괜찮아 보였지만, 문닫을 시간에 쫓겨서 다 보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박물관을 나왔다.

화장실 비용

박물관에는 화장실이 무료다. GEM 도 그랬고, 인류 박물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직원이 문을 잡고 서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와서 얼마냐고 묻는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받고 있었다. 사람에 따라서 10파운드를 받기도 하고, 동전을 받기도 하고, 어느 백인중년 여성에게는 100파운드를 요구했다. 보다 못한 내가 여기는 무료라고 이야기 해주자, 청소직원이 나를 향해 욕을 하고, 샷대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박물관에 저런 직원이 있는것이 너무 안타깝다.

관광지에 가면 화장실에 비용을 내고 가야 하는데 있다. 비용을 내는 곳에는, 남녀 화장실 중간쯤 혹은 입구에 돈받는 아저씨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부심벨과 열기구 타는 곳이다. 두루마리 휴지를 쌓아두고, 돈통을 두고 앞에 대기하고 있다. 20파운드 언저리 비용이고, 잔돈도 거슬러 준다. 그리고 돈을 내면 휴지를 몇칸 뜯어준다. 그렇지 않은 곳은 무료이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용돈벌이 삼아서 손씻는 관광객에게 페이퍼타월을 건내며 팁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속이는 경우에는 당하지 말자.

2월 15일 일요일.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뒤, 우리는 새벽 비행기를 타고 룩소르로 이동한다. 솔직히 말하면, 새벽 비행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꽤 오래 고민했다. 하지만 카이로에서 룩소르까지 기차로 이동하면 10시간이 훌쩍 넘는다. 시간은 여행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라, 결국 비행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용한 항공사는 Nile Air. 기내 수하물은 7kg 미만만 허용되었고,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비용은 두 사람 기준으로 약 360달러. 가격만 보면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루를 통째로 이동에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비용보다는 시간이 소중한 입장이기에 비행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출발 시간이다. 비행기는 오전 7시 20분 출발. 숙소에서 공항까지 차로 약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새벽 5시에는 출발해야 한다. 다행인것은 시차가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는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새벽에 체크아웃을 하고 택시를 불렀다. 우버가 오더니, 새벽에 공항을 가면 빈차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왕복 택시비로 25달러를 달라고 한다. 우선 우버기사는 돌려보냈다. 그리고 호텔 입구에서 담배피던 호텔직원에게 이게 맞는거냐 물었다. 원래 왕복비를 줘야한다. 헐. 20달러에 호텔에서 불러주는 기사님의 차를 타기로 했다. 첫날 우리를 픽업해주셨던, 매드 맥스 분노의 질주 기사님이다. 두번째 봤다고 반가웠다. 기사님은 예상처럼 총알처럼 달려서 금새 공항에 데려다 주셨다. 공항에서 올때 무료 픽업이었으니, 다시 공항갈때 비용을 두배로 내는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려니 해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공항에 도착하니, 가관이다. 도대체 짐 검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공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여권과 짐 검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줄을 서서 짐검사와 몸검사를 하고서 티켓을 발급받으러 갈 수 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티켓을 받은 상태여서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었다. 국내선을 타면서 이렇게 마음 조릴만큼 오래 걸릴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공항에서 특이한 것은 남자와 여자 줄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입국때도 그랬지만,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몸수색을 할때 정말 몸을 꼼꼼히 만지기 때문에 성별을 나눠야 하는게 맞는것 같기도하다.

비행기 보딩시간이 되어도 감감무소식이다. 몇십분 연착은 일상 다반사같다. 서틀버스를 타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웃음이 빵 터졌다. 캄보디아 비행기에 캄보디아 승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 사는 친한 선배에게 비행기 사진을 찍어 보냈다. 캄보디아에 왔냐며 반색하며 답이 왔다. 비행기 덕분에 오랜만에 선배와 인사를 나누었다. 짧은 비행이지만 물도 주고, 친절하다.

비행기가 랜딩 할쯤 바깥을 보면, 나일강과 그 주위의 초록 평원들이 보인다. 좁은 평원 지대를 넘어서는 삭막한 사막과 협곡이 보인다. 사막이라 해서 모래만 가득한 사막이 아니었다. 높고 낮은 산과 협곡이 험준한 사막이었다. 이 협곡 어딘가에 왕들의 무덤이 숨어 있었으리라.

두근두근. 따뜻하고 모래바람이 없는 룩소르에 도착했다.



시가 그려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나일강 풍경. 실제로 나일강을 따라서 초록지대가 보이고, 그 너머는 모두 사막지형이다.

룩소르 2박 3일

Day 1 - 카르낙 신전, 룩소르 신전

Day 2 - 멩논의 거상, 왕가의 계곡,
하트셉수트 장제전, 메디넷 하부 신전

드디어 룩소르! 고대 이집트 시대때는 테베라고 불렀고, 가장 번성했던 대도시였다. 그래서 여기에 신왕국시대 왕들의 공동묘지인 왕가의 계곡이 있는 것이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카이로와는 또 다르다. 카이로는 모래색으로 가득찬 갈색빛 도시였다면, 룩소르는 푸른 나무와 깨끗한 공기가 느껴지는 숲같은 느낌이다. 룩소르는 우버가 잘되지 않는다는 말에 호텔픽업을 부탁했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호텔 픽업 기사가 없었다. 호텔에서 실수로 보내지 않은것 같다.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렀다. 호텔까지 30분 거리인데, 250 egp를 불렀다. 공항 밖까지 나와야 탈 수 있다는 메시지에 공항밖으로 걸어나갔다. 공항 입구에는 항상 경찰이 경비를 선다. 공항 입구를 나가니, 택시 드라이버가 득달같이 말을 바꿔서 25달러를 내라고 한다. 흥정도 귀찮고, 픽업을 오지 않은 호텔의 실수에 짜증이 났다. 그래서 다시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렀다. 200 egp에 흥정을 하고 택시가 도착했다. 가는 길에 기사가 휴지파는 아주머니에게 적선을 했다. 휴지파는 여자들이 정말 휴지를 파는게 아니라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 한국 지하철에서 껌이나 뉴욕의 지하철에서 초콜렛을 파는 것처럼 말이다.

착한 기사 아저씨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숙소에도착할 즈음 기사님이 우리에게 작업을 걸었다. 열기구를 저렴하게 타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호텔을 통해서 열기구 체험을 150 달러에 예약을 한 상태였다. 그런데, 픽업도 오지 않은

호텔이 실수로 우리의 열기구 자리를 예약하지 않았으면 낭패다. 그런데 이 기사는 90달러에 예약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 어차피 호텔을 믿을 수 없으니, 이 기사를 믿어보자.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니 나쁜 사람은 아닐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오늘 가야하는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은 나일강 동쪽에 있는데, 우리 숙소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또 택시를 부르고 흥정하는것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기사에게 하루에 30달러를 줄테니, 대절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내일은 왕가의 계곡 및 서쪽을 투어할거니 내일도 30 달러에 대절을 하기로 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화가 잔뜩난 얼굴로 컴플레인을 했다. 기사를 안보내서 내가 너무 불편했고, 예약한 열기구도 취소하겠다고 했다. 호텔 매니저 모세스는 너무 미안하다며, 직원이 실수를 한것 같단다. 이제 머무는 동안은 자기가 책임이니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며, 오전 9시반쯤에 체크인을 해주었다. 호텔에 짐을 두고, 우선 택시를 타고 첫번째 신전으로 향했다.

첫 일정은 카르낙 신전.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둘러볼 계획이다.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했고, 가격은 600 EGP. 요즘 달러 환율이 좋아서 룩소르 주요 관광지 네 곳의 티켓을 두 사람 기준으로 모두 구매했는데, 총액이 약 96달러 정도였다. 우선 이제부터 볼 신전들과 유물들은 고대 이집트 신들의 종류와 왕들에 대해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도 높게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카르낙 신전

입장료: 600 GEP 개장 시간: 오전 6시 - 오후 5시

첫 일정은 카르낙 신전.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둘러볼 계획이다.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했다. 요즘 달러 환율이 좋아서 룩소르 주요 관광지 네 곳의 티켓을 두 사람 기준으로 모두 구매했는데, 총액이 약 96달러 정도였다. 우선 이제부터 볼 신전들과 유물들은 고대 이집트 신들의 종류와 왕들에 대해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도 높게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은 신들을 숭배하고, 본인을 신격화 시키는 것에 진심이었다. 왕들의 계보에서 언급했듯이 짧은 인생을 살았던 왕들도 많았고, 긴 인생을 살고 업적이 많은 왕들도 있다. 신의 종류가 많긴 하지만, 왕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은 중복된다. 그래서 이전 왕들이 짓던 신전을 이어받아서 증축하기도 하고, 본인의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다. 그래서 수 많은 신전이 생겼고, 주요 신전들 몇개를 탐방 할 계획이다. 자. 가보자 카르낙 신전.



세바퀴 돌면 소원을 들어주고, 다섯바퀴 돌면 임신을 한다는 스카라베 조각



카르낙 신전은 현존하는 신전 가운데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기원전 약 2,000년경부터 시작해 무려 1,500년에 걸쳐 여러 왕들이 증축을 거듭한 복합 신전으로, 한 왕의 업적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는 공간이다. 대열주실을 중심으로 오벨리스크, 투트모스 3세의 신전, 람세스 3세의 신전 등이 이어진다.

이곳은 태양의 신 아문, 그의 아내 무트, 그리고 아들 콘수로 이루어진 테베 삼신(三神)을 모시는 신전이다. 신전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는 양머리를 한 아문 스피르크스 42기가 늘어서 있다. 원래 이 스피르크스 가로수길은 약 2.7km에 달해,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르 신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곳을 “가장 존귀한 장소”라고 불렀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입구에 서는 순간 바로 느끼게 된다. 신전 안에는 람세스 2세의 석상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좌상과 입상을 포함해 총 여섯 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카르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열주실(하이포스타일 홀). 람세스 2세 시대에 완성된 이 공간에는 무려 134개의 거대한 기둥이 숲처럼 서 있다. 기둥 꼭대기는 파피루스 꽃봉오리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고, 기둥과 천장에는 파라오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 장면과 신들의 이름이 화려한 채색으로 남아 있다. 색은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공간이 의식과 권력의 중심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카르낙 신전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신과 왕, 시간과 권력이 겹겹이 쌓인 도시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며, 신의 이름이 바뀐다. 이곳을 걷는다는 것은 유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시간 속을 통과하는 일에

가깝다. 웅장한 건축물 사이를 거닐며 감탄에 감탄만 할 뿐이다. 이 커다란 기둥과 벽면을 빼곡하게 그림과 글로 가득 채웠다. 태양이 작열하는 더위지만, 기둥이 워낙 높고 넓어서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

카르낙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하트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다. 높이 약 29미터에 달하는 화강암 오벨리스크 표면에는 여왕의 업적과 신에 대한 헌사가 빼곡히 새겨져 있다. 여성 파라오였던 그녀가 이 거대한 돌기둥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과 권위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돌을 읽듯 바라보게 된다. 이 오벨리스크 역시 본래는 두 개였으나, 그 중 하나는 1833년 무함마드 알리 왕이 프랑스 국왕 루이 필리프에게 선물로 보내 현재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 서 있다. 카이로가 아니라 파리 한복판에서 이집트를 마주하게 되는 이유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유명한 것은 딱정벌레 모양의 스키라베 조각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세번 돌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그리고 다섯바퀴를 돌면 아이가 생긴다고 한다. 우리는 세바퀴를 돌면서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 카르낙 신전을 다 보고났더니 너무 허기가 졌다. 룩소르 시장에 가서 점심을 먹고, 사려고 했던 기념품도 산 후에 룩소르 신전을 보아야겠다.

룩소르 신전에서 5분거리에 시장과 내가 봐두었던 기념품 가게들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기사님께 시장에 우리를 내려주고, 오후 4시쯤에 룩소르 신전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편히 관광하고 시간을 보낼테니, 기사님도 우리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본인 일도 보고 손님을 더 태우라고했다.

시장에 내려서 우선 음식점에 갔다. 리뷰가 좋은 음식점이었지만, 그냥저냥 오케이 수준. 이미 해가 중천이어서 너무 더웠다. 카이로와 달리 태양빛이 아주 살을 따갑게한다. 챙이 넓은 모자와 선그라스가 없었더라면 피약별에 구워진 오징어가 될 수도 있겠다. 음식점에서 시원한 물을 사서, 텀블러에 옮겨 닦았다.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지 않으면 이 더위는 견딜 수 없을지도.

식사 후 시장 구경을 조금하였다. 시장구경을 괴로워하는 남편과 호객하는 상인들의 콜라보때문에 경보하듯 시장을 통과했다. 내가 봐두었던 기념품샵에 갔다. 정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인 Ata Bazar 에서 작은 동전지갑을 몇 개 샀다.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한 한국인들의 엄청난 후기가 있는 샘하우스 주얼리샵에 갔다. 남편과 서로의 이름을 상형문자로 새

긴 커플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것도 정찰 35달러여서, 고민 없이 사이즈 맞추고 디자인을 골랐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연꽃 파피루스 가게. 이름을 상형문자로 그려넣은 책갈피를 주문하기 위해서다. 배낭을 매고 여행을 하는터라, 크고 무거운 기념품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볍고 짐이 되지 않는 책갈피를 지인들의 이름을 넣어서 몇 개 주문했다. 반지와 책갈피 모두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두시간 정도 기다려야한다. 기다리는 동안 룩소르 신전을 돌아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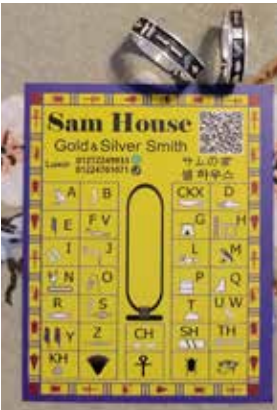
연꽃 파피루스

파피루스에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는 사장님. 이름을 영어로 써주면 상형문자로 바꿔서 책갈피를 만들어주신다.

인스타그램: lotuspapyrusluxor

시간: 오전 10시 - 밤 10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샘하우스 주얼리샵

Sam House Luxor

Gold And Silver Smith

아들이 대를이어 운영하는중인 샘하우스.

서로의 이름을 상형문자로 새긴 은반지.

시간: 오전 10시 - 밤 10시

기념품 자석을 선물로 하나씩 주심

친절한 정찰제.

간판부터 한국어 써여있음.



룩소르 신전

입장료: 500 EGP 개장 시간: 오전 6시 - 저녁 7시

룩소르 신전 입장권은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들 입을 모아 말하길 룩소르 신전은 해질녘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를 4시까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관람을 해야했다.

룩소르 신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신전이 아니다. 이곳은 카르낙 신전에 머무는 아문 신이 오페트(Opet) 축제를 위해 방문하는 장소였다. 오페트 축제는 매년 약 11일 동안 열렸고, 신의 동상은 배에 실려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르 신전까지 이동했다. 이 행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파라오의 통치 정당성을 신에게서 재확인받는 국가적 행사였다.

신전은 아멘호텝 3세가 건설을 시작했고, 람세스 2세가 크게 확장했다. 특히 람세스 2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거대한 석상과 오벨리스크를 세웠다. 신전 입구에서 있는 그의 좌상은, 신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왕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신전 내부의 기둥들은 파피루스를 본뜬 형태로, 나일강과 재생, 풍요를 상징한다.

시간이 흐르며 룩소르 신전의 용도도 변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일부 공간이 기독교 교회로 사용되었고, 벽면에는 성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 공간 안에 고대 이집트 신앙, 로마 제국의 흔적, 기독교가 겹쳐 존재하는 모습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나온 시간의 밀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룩소르 신전에 가면 길게 쪽 나열해 있는 스�핑크스 로드 중앙에 배모양을 만 들어 두었다. 신의 모양을 실어 날랐던 배를 복원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워낙 인상적인 카르낙 신전의 웅장한 규모를 보았기 때문에, 룩소르 신전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은 아니었다.

간단히 룩소르 신전을 돌아보고 더위를 식히러 맥카페를 갔다. 맥도날드가 여기에서는 핫스팟 이었다. 시원한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하루 종일 걸었던 다리도 실겉 더위도 피할겸 너무 좋았다. 잠시 맥도날드에서 휴식을 하고나니 벌써 4시가 다 되어간다. 맡겨두었던 반지를 찾아서 서로의 손에 끼워주고, 파피루스 책갈피도 찾으러갔다. 기사님에게 Lutos Papyrus 로 픽업 와달라고 하니 금방 와주셨다. 반지를 맞출 때는 덥고 피곤한 상태여서 손이 많이 부어 있었다. 저녁이 되고 피곤이 조금 풀리니, 붓기가 빠져서 반지가 헐거워졌다. 나와 남편 모두 반지가 조금 헐거워진걸 미루어 보아, 혹시 반지를 맞추려거든 조금 타이트 하게 맞추는 것을 추천한다.



기독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벽화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피곤한 몸을 조금 뉘었다. 햇빛은 너무 뜨겁지만, 그늘에 앉아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금방 땀이 식고 기분좋은 선선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 조금 쉬고 났더니, 저녁시간이 되었다. 우리 숙소가 조금 외진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길가의 변화가 까지는 15분은 걸어나가야 한다. 그러기에는 피곤해서, 숙소에서 가까운 리뷰가 좋은 작은 음식점을 찾아갔다.

Rustic House Restaurant 인데, 가족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음식점이다. 리뷰도 좋고 가격도 엄청 저렴해서 우선 이것저것 시켜보았다. 작은 도자기 팻에 음식들이 스투처럼 끓여져서 나왔고, 밥도 냄비밥처럼 귀엽게 나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일인가. 너~ 무 맛있다. 콩으로 만든 스프도, 스투처럼 나온 닭고기며 양고기며, 샐러드까지 정말 맛있었다. 우리는 밥도 추가하고 다른 음식도 추가해서 잔뜩 배부르게 먹었다.

배부른 식사 후에 이집트차도 시켜먹었다. 서빙하는 사장 아저씨가 이집트 차는 후레시민트가 들어가는게 특징이라며 가져다 주셨는데, 차이티에 생 민트잎을 넣어 먹는 맛이다. 따뜻한 차와 상큼한 민트의 향이 아주 잘 어울렸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식문화를 하나 배웠다. 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꼭 차를 끓여먹어봐야겠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내일은 생선 요리를 먹으러 올테니, 우리를 위해 생선 두마리를 꼭 남겨놓으라고 부탁을 하고 숙소도 돌아왔다. 내일은 새벽부터 열기구를 타러 가야하니, 일찍 잠들었다.



리뷰가 좋지 않았으면 안들어갔을법한 입구. 실상은 숨은 맛집.

2월 16일 월요일. 열기구를 타는 날이다. 5시 45분에 약속대로 마흐무드가 데리러 왔다. 우리는 일출 후 뜨는 열기구를 탈 예정이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늦게 출발하는 것이다. 7시까지 벌룬이 뜨는 장소를 가야하는데, 가는 길에 맴논의 거상을 먼저 둘러서 보았다. 마흐무드가 맴논의 거상과 함께 새벽 일출보는 열기구들을 사진찍으라며, 포토스팟에 내려다 주었다. 알록달록한 열기구들이 떠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수천년 전 유물을 사진에 남기는 것은 상상해본 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맴논의 거상은 입장료가 없이 무료로 보는 유적지에 새벽시간이라 우리밖에 없었다. 마흐무드 덕분에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다. 센스를 아주 칭찬해~



떠오르는 새벽 열기구들을 배경으로 바라 본 맴논의 거상

멤논의 거상

약 3,400년 전, 기원전 14세기 중엽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를 형상화한 거대한 석상이다. 네메스 왕관을 쓴 파라오가 동쪽, 나일강을 향해 앉아 있으며, 두 손은 허벅지 위에 단정히 올려져 있다. 발치에는 그의 아내 티예와 어머니 무템위야의 작은 조각상이 함께 새겨져 있다.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혈통과 계보 위에 놓여 있다는 선언처럼 보인다.

이 석상들은 아멘호테프 3세가 룩소르 서안 콤 엘 헤탄에 세운 장제전, 즉 국왕의 영혼을 기리는 제의 공간의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원래는 훨씬 거대한 신전 단지의 일부였지만, 장제전 자체는 오늘날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기원전 27년경 발생한 대지진으로 신전과 석상에 균열이 생겼고, 이후 범람과 석재 재사용을 거치며 대부분 붕괴되었다. 일부 석재는 다른 신전과 건축물로 옮겨져 재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지에서는 이곳을 콤 엘 헤탄이라 부르지만, 서구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석상들을 ‘멤논의 거상’이라 불러왔다. 멤논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이자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의 왕이다.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북쪽 거상에서 새벽 무렵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생긴 균열 사이로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햇볕이 만나며 ‘울음’ 혹은 ‘현악기 소리’처럼 들렸다는 설명이 유력하다. 고대의 여행자들은 이를 멤논이 어머니 에오스에게 보내는 인사로 해석했다. 이후 로마 황제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가 거상을 복구하자,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신화는 사라지고, 돌만 남았다. 워낙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입장료를 받을곳이 아니었다. 그래도 거대한 석상의 규모와 유적지의 잔재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드디어 도착한 열기구들이 뜨는 별판에 왔다. 이미 일출을 보는 열기구들이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40명이 타는 거대한 바구니와 40명의 인원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커다란 풍선이 어떻게 준비되고, 떠오르는지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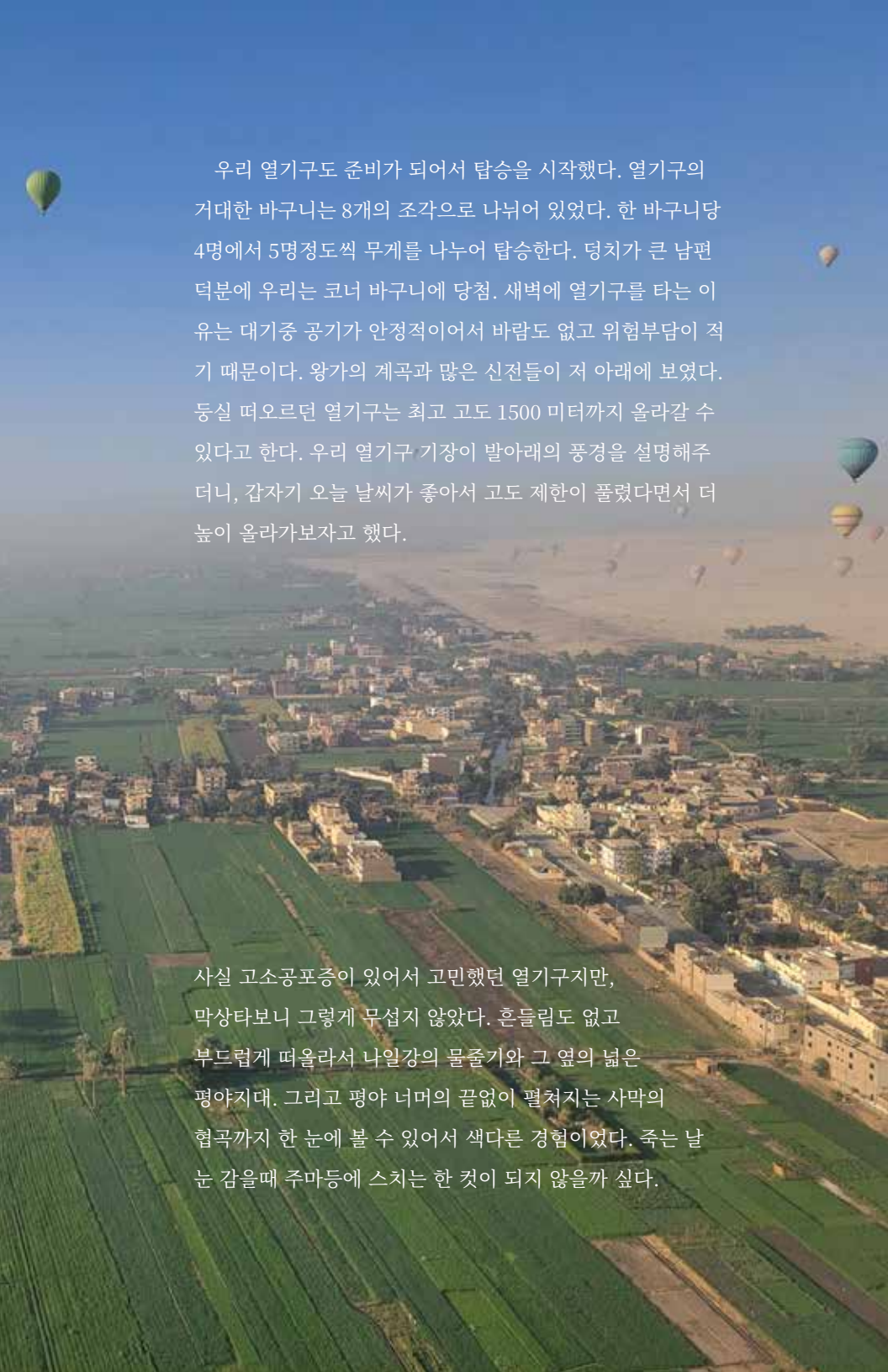


떠오르는 열기구들. 열기구를 띄우려면 넓고 편평한 바닥이 필요하다

우선 바닥에 풍선을 잘 펴서 자리를 잡는다. 바구니도 넓혀서 풍선과 연결시킨다. 강풍기 4대로 풍선 속에 공기를 불어 넣는다. 어느정도 공기가 차오르면 자동차가 바구니를 끌어당겨 세워준다. 동시에 바구니 가운데에서 열을 내면서 뜨거운 공기를 풍선속으로 불어 넣는다. 뜨거운 공기가 차올라서 어느정도 열기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바구니에 타기 시작한다. 사람들도 다 타고 자리를 잡는동안 열기구는 뜨거운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서 바구니를 띄우려고 한다.



풍선에 공기를 넣고 풍선 모양을 잡고 바구니의 무게중심도 잡는 열명 정도의 장정들이 바구니에 매달려서 힘으로 균형을 잡아준다. 그러다가 열기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들이 동시에 바구니를 놓아서 하늘로 떠오를 수 있게 돕는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city, likely Luxor in Egypt, showing a mix of green agricultural fields and urban buildings. The sky is filled with numerous hot air balloons of various colors, including green, blue, yellow, and red, floating at different altitudes. The lighting suggests a clear, bright day.

우리 열기구도 준비가 되어서 탑승을 시작했다. 열기구의 거대한 바구니는 8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바구니당 4명에서 5명정도씩 무게를 나누어 탑승한다. 덩치가 큰 남편 덕분에 우리는 코너 바구니에 당첨. 새벽에 열기구를 타는 이유는 대기중 공기가 안정적이어서 바람도 없고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왕가의 계곡과 많은 신전들이 저 아래에 보였다. 동실 떠오르던 열기구는 최고 고도 1500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열기구 기장이 발아래의 풍경을 설명해주더니, 갑자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도 제한이 풀렸다면서 더 높이 올라가보자고 했다.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민했던 열기구지만, 막상타보니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흔들림도 없고 부드럽게 떠올라서 나일강의 물줄기와 그 옆의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평야 너머의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협곡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다. 죽는 날 눈 감을때 주마등에 스치는 한 컷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열기구 40여분 비행후에 어느 돌이 많은 평지에 안착했다. 우리가 안착할즈음 열기구 뜨는것을 도와주었던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안착과 풍선을 접는 일을 했다.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일을 착착착 잘하는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었다. 우리 열기구 기장이 본인은 월급을 많이 받으니, 고생하는 크루들에게 팁을 주라고 했다. 우리도 팁통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돈을 넣었다.

열기구는 넓은 평지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떠오르는것도 그렇지만, 내릴때는 꼭 평지가 있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터키의 카파도키아나 이집트의 룩소르처럼 넓고 평평한 지대에 열기구를 띄우나보다. 그리고 난류가 적고, 일정하며 약한 바람이 필요한데 보통 완만한 계곡이나 사막이 적합하다고 한다. 또한 열기구는 일출 직후에만 뜨는 이유가 밤동안 차가웠던 지표면과 공기층이 안정화 되어서 바람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항공시설 근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아무런 항공시설에 방해를 주지 않는곳이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곳은 세계에서 몇군데 없는데, 우리는 이번에 운 좋게도 여기에서 새로운 멋진 경험을 했다. 인생에서 한번쯤은 타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조식을 먹을 시간이다. 택시기사 마흐무드에게 30분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빨리 조식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날이 더워지기전에 유적지를 돌아볼 요량이다. 새벽에는 기모가 있는 후디에 애정하는 깔깔이 점퍼까지 잘 챙겨입고 갔지만, 곧 섭씨 30도가 넘는 날씨가 될거니 여름옷으로 갈아입었다. 새벽에 선크림을 발랐지만, 다시 한번 선크림을 바르고 조식을 먹으러 루프탑으로.

나일 파노라마 호텔 Nile Panorama Hotel

룩소르에서 호텔은 테라스가 있는 나일강이 보이는 뷰로 정했다. 카이로 호텔과 비교할 수 없게 넓고 쾌적한 방이었다. 숙소가 나일강 서쪽에 있는 시골마을에서도 거대한 바나나밭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테라스에 나가면 넓은 바나나밭 너머로 나일강이 보인다. 룩소르는 바나나와 사탕수수 농사가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에서 모두들 사탕수수를 그렇게들 까고 있었다. 저녁 먹으러 걸어나가는 길의 양 옆은 바나나밭이라서 바나나가 주렁주렁하다. 말이 먹을 풀을 싣고 가는 수레를 끄는 당나귀, 사람들이 모여서 말경기를 하는 모습, 10살 남짓 어린아이가 툽툽을 운전하는 모습, 전통옷을 입은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물담배 피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경하다.

호텔 루프탑에서 보는 바나나밭과 저~멀리 나일강 너머의 도시들



이 호텔은 조식이 잘 나온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정말 세 도시의 호텔중에 조식이 제일 좋았다. 이집트에서는 조식에는 타아메야라고 하는 삶은 파바콩과 허브를 몽쳐서 튀긴요리가 꼭 나온다. 아이시 발라디라는 전통빵은 모든 음식에 나온다. 이 빵은 화덕에 구운 손바닥만한 단 맛이 없는 살짝 쫄깃한 습습한 빵이다. 가운데가 벌어지는 이 빵속에 다른 부재료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먹거나, 조금씩 뜯어서 다른 요리에 찍어서 먹는다. 호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토마토 오이 당근 샐러드, 치즈와 계란요리는 항상 있었다.

이 호텔에서 최고 좋았던 것은 조식에 나오는 치즈인데, 내 주먹 반만한 물소치즈 (키슈타) 덩어리를 통으로 주었다. 치즈가 너무 부드럽고 고소했다. 꿀과 함께 먹으니 백종원씨가 극찬하는 터키의 유명 카이막과 비슷하지만, 개인적으로 키슈타에 꿀이 더 부드럽고 맛있었다. 카이로에서 마신 커피는 모두 연해서 따로 챙겨갔던 믹스커피를 마셨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커피도 진하고 맛있다. 분명 네스카페 브랜드를 쓰는것 같은데, 커피맛이 다르다. 찾아보니 네스카페도 지역마다 커피 원산지가 달라서 맛이 다르다고 한다. 아프리카 커피를 사용해서 그런지 신맛이 적고 향이 더 진해서 너무 좋았다. 여기서도 이집트차에는 민트입을 넣어주었다.

조식을 서둘러 먹고 오늘의 투어를 떠난다. 마흐메드가 5개의 유적을 보라고 하는데, 3군데 (왕가의 계곡, 하트셉투스의 장제전, 멤논의 거상)는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고 두 군데 (왕녀의 계곡, 하부신전)는 생소하다. 우선 내가 보려했던곳부터 보고 나머지 두군데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왕가의 계곡을 가보자.

왕가의 계곡

입장료: 750 EGP 운영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5시

신왕국시대에 이집트가 가장 번성하고 큰 영토를 가졌던 제국의 시대였고, 그때 수도가 바로 여기 룝소르 (테베)다. 여유로운 물자와 강력한 왕권, 예술이 발전했던 시기기도 했다. 고왕국시대에는 피라미드가 왕들의 무덤이었지만, 신왕국 시대에는 계곡의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왕가의 계곡이며, 왕들의 공동묘지 같은 것이다.

왕가의 계곡은 이집트 제18왕조부터 제20왕조까지, 약 500년에 걸친 신왕국 시대 파라오와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장소다. 현재까지 알려진 무덤과 석실은 모두 65기. 어떤 것은 단순한 구덩이에 가깝고, 어떤 것은 람세스 2세의 아들이 묻힌 무덤처럼 120개가 넘는 석실을 가진 거대한 구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무덤은 고대부터 이미 도굴되었지만, 그럼에도 왕들이 가졌던 부와 권력을 상상하기에는 충분하다.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며 이곳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9살에서 18세 까지 즉위를 했던 어린 소년의 왕의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가면과 전신 황금 미라관과 황금마차등 다양한 황금 유물들이 쏟아져나오며, 신왕국시대 이집트 왕의 화려한 삶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계곡은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고, 그만큼 파숫꾼이 지키기에도 유리한 장소였을 것이다.

피라미드와 마찬가지로 왕들은 자신의 무덤을 살아있을때 짓기 시작한다. 신전도 짓고, 무덤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재워 기간이 짧은 왕들은 무덤을 조금 파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무덤들이 있는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후대 왕이 서둘러 대강 완성시키고 무덤을 막았다. 누구나 죽음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남은 생과 하고자하는 업적에 필요한 시간이 대충 맞아떨어져야지 완성도 있는 삶과 죽음이 된다.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서 주차장에 가기전부터 엄청난 관광버스와 자동차들로 꽉 막혀있다. 우리는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서 걸어서 입구로 갔다. 티켓을 스캔하고 입구로 들어가면, 그냥 협곡에 도로가 보인다. 입구 구석에서 파는 셔틀버스 티켓 (25 파운드) 을 사면 10명 남짓 타는 작은 셔틀버스를 탈 수 있다. 셔틀버스 티켓을 받고, 셔틀버스를 타면 허무할만큼 2분만에 무덤 입구에 도착한다. 왼쪽에 보이는 표지판에 큰 지도가 있고, 어느 무덤이 오픈했는지도 적어두었다. 이 표지판은 매일 업데이트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믿을것이 못된다. 무덤 위치만 확인하는 용으로 쓰면 된다. 막상 오픈했다고 해서 가보면 닫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복원과 무덤 상태에 따라서 입장가능하게 열어줄때가 있고 닫을때가 있다고한다.

기본 입장권으로 들어가면 세계의 무덤을 관람할 수 있다. 무덤입구에서 종이티켓을 보여주면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방문 무덤 개수를 확인한다. 우리처럼 온라인티켓이면 그냥 들여보내주거나 스캐너로 QR을 스캔하기도 한다. 입구마다 지키는 직원이 스캐너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3개

이상 볼 수 있었다. 유명한 무덤이나 투어 코스에 포함된 곳은 추가비용이 있거나 사람이 몰리지만, 그 외의 무덤들은 비교적 한산하다. 왕들의 계보를 미리 공부하고, 관심이 가는 파라오의 무덤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이곳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관심있는 몇 가지 무덤을 미리 공부하고 보러 가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 충분한 물을 가지고 가야한다. 우리는 텀블러에 시원한 물을 각각 한통씩 담아갔는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 택시에는 여분의 물을 1.5리터 가지고 있어서, 다음 유적지에서 소중한게 잘 마셨다.



덤 내부의 상형문자 - 며칠전에 새긴것 처럼 선명하고 색이 예쁘다

추가비용이 있는 묘

투탕가멘

KV62 가장 유명한 무덤. 미이라가 있다. 규모는 작지만 임팩트가 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황금마스크와 유물은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으로 옮겨갔다. 700 파운드 정도 추가비용. 미이라도 없고 유적도 없는 상황이라서 비추.

세티 1세

KV17 람세스2세의 아버지. 재위기간은 11년 정도지만, 람세스2세가 누릴수 있도록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고 강건한게 자리잡게 만든 왕이다. 카르낙신전의 엄청난 기둥건축을 시작했고, 예술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던 왕이다. 미이라는 카이로 문명박물관에 안치되어있지만, 그의무덤은 왕가의 계곡에서 137 미터로 가장 길고 화려하고 완성도가 높다고 한다. 그만큼 입장료도 2,000 파운드로 가장 비싸다.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람세스 5세 & 6세

KV9 재위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던 람세스5세의 무덤을 삼촌인 람세스6세가 확장공사해서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이다. 이들이 통치한 시기는 파업도 일어나고 강인한 제국의 시대가 저무는 쇠퇴기였다. 다만, 사후 세계의 우주론을 시각적으로 완성해서 보여주는 천장벽화가 뛰어나다고 한다. 200 파운드 정도 추가비용.

보려했으나 달혀서 못봤던 왕묘

투트모스 3세의 무덤(KV34)

절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 벽화의 형식이 매우 독특하다고 한다.

아멘호테프 3세의 무덤

왕가의 계곡 서쪽(WV22)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날 룩소르 평야에 남아 있는 메모논 거상은 그의 장제전 입구를 장식했던 조각이다.

람세스 3세 (KV11)

강력한 신왕국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람세스3세는 61년간 통치를 하면서 지중해의 해적을 막아내고 강력한 제국을 지킨 왕이었다. 그의 해상 전투 이야기는 메디넷 하부신전 벽화에 자세히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인류최초의 파업사건이 그의 시대에 일어났고, 왕권이 약해지면서 쿠데타로 인해 살해당했을거라 추정한다. 미이라는 카이로의 문명 박물관에 있다. 목부위까지 붕대로 감겨있는것이 인상적인 미이라였다.

왕가의 계곡 무덤중에 가장 길고 화려한 무덤 중 하나다. 규모와 보존 상태 모두에서 아주 좋다. 문들의 서, 동굴의 서, 지구의 서가 모두 표현되어 있는 무덤이다. 무덤에 들어가면 복도 양옆과 천정까지 빼곡하게 그림과 글이 가득하다. 부조처럼 글과 그림을 새겨서 만들고, 알록달록 다양한 색도 입혔다.

도형과 디자인 모두가 너무 예쁘고 정교하다. 이 그림들에는 모두 의미가 있는데, 죽음을 맞이한 후 사후세계에 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줄을 서서 사후세계로 들어가고, 죄의 무게를 심판받은 후 나쁜사람은 죽고 착한 사람은 부활한다. 다시 태어나기 직전에 임신한듯이 배가 불러 온 파라오들은 결국 다시 부활하게 된다. 재생과 보호를 상징하는 뱀이 왕을 따라다니면서 지키기도 하고, 사람머리에 발이 달린 뱀이 새로 태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인간 머리와 발을 가진 뱀 신 네헵카우가 저승에서 영혼을 보호하거나 통제하는 장면의 벽화. 죽은 왕이 사후 세계를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돕는 과정의 일부.



세티2세 (KV15)

람세스2세의 아들이자, 재상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을 의심받은 왕이었다. 왕국은 분열되고 있었고, 십타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통치는 6년밖에 하지 못했다. 미이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카이로 문명박물관에 안치되어있다. 신왕국 후기 스타일의 무덤인데, 후기 스타일의 특징은 이러하다. 복잡하고 방이 많은 무덤이 일직선으로 단순화되었다. 중요한 그림과 여백 위주의 조각같은 깊은 벽화가 뾰뾰한 글자와 얇은 그림스타일의 벽화로 바뀐것이다. 그리고 왕의 업적보다는 우주의 구조에 대해 조금 더 치중한다.

세티2세부터 이러한 신왕국 후기 스타일이 보이는것이어서, 무덤 초입 부분의 조각들은 부조처럼 깊고 섬세한 편이다.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이 가능한 이유는 왕가의 계곡이 있는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석회암은 조각이 용이하게 무르지만, 완성후에는 공기와 만나서 점점 단단하게 굳는다. 구리나 청동끌과 돌망치로 형태를 파내면서 조각을 하고, 돌안료로 발라서 완성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입구에 상단에 있는 노란색 원반 안에 풍뎡이 (스카라베)와 소머리사람 (하토르 여신) 이 그려져 있다.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데, 한번 해석해보자. 왕이 죽으면 그는 태양처럼 서쪽으로 사라져서 죽음의 영역 (서쪽)으로 간다. 그 곳에서 죽은 자의 수호자이자 태양을 낳는 어머니인 하토트라 왕을 맞인다. 하토르는 사자를 인도하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죽은 왕을 품안에서 재탄생을 준비시키는 우주적 어머니다. 태양 원반속의 스카라베는 새벽 태양의 탄생을 상징하고, 이는 왕이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결국 이 그림은 왕이 태양과 동일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나타낸다. 이 무덤도 볼 것이 많고 아주 디테일한 문양과 색이 좋으니 방문을 강력 추천한다.

십타 (KV47)

11살쯤 통치를 시작해서 6년간 통치하고 죽은 어린왕. 무덤에 볼 것이 거의 없다. 작은 석관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데, 섭정을 했던 왕의 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듯 하다. 미이라는 카이로 문명 박물관에 있고, 그는 투탕카멘처럼 한쪽 다리가 짧고 병약했다고 한다. 별로 볼것은 없으니 비추.



람세스 4세 (KV2)

살해당한 람세스3세의 아들이었다. 6년간 통치하며, 무너진 왕권을 재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었다. 왕릉 건설을 위해 8천명의 노동자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왕가의 계곡 초입에 위치한 이 무덤은 관람객이 엄청 많다. 통로가 길고 일직선형인 이 무덤은 신왕국 후기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 주는데, 그림보다는 벽면을 짙 채운 글이 많고, 부조식보다는 채색그림 위주의 무덤이다. 특히 천정벽화가 인상적인데, 파란색 바탕에 노란별을 천정 가득히 매운것을 볼 수 있다. 항해하는 배들은 별을 보고 이정표를 삼는다. 이처럼 죽음 후 항해에서 이정표가 되고 별처럼 영원하라는 상징이다. 람세스4세의 미이라는 카이로 문명박물관에 안치되어 있고, 이 무덤에는 석관이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죽으면, 태양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두아트라 불리는 밤의 세계로 들어간다. 왕은 태양신 (라)와 함께 태양의배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해하며 지하세계를 통과한다. 이 항해동안 여러관문을 지나고 신들의 심판을 받고, 우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존재들에 맞서 싸운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새벽에 태양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동쪽하늘에서 빛으로 부활한다. 결국 왕들은 신체가 죽음을 맞이 한 후 태양의 영원한 순환에 합류하여 끊임없는 재생과 부활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왼쪽 사진) 람세스4세 무덤 내 천정벽화. 파란 밤하늘과 무수히 놓인 별들이 인상적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 - 히포크라테스

이집트 무덤 벽화를 볼 때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색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 색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재료와 상징을 함께 품고 있다. 그리고 이 안료는 돌 위에 단순히 칠해진 것이 아니라, 석회로 만든 회반죽 층 위에 얹혀 돌과 하나가 되듯 고정되어 있다.

장인들은 먼저 석회암 벽을 다듬은 뒤 얇은 석회 플라스터를 바르고, 그 위에 광물에서 얻은 천연 안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 사막의 건조한 환경과 안정된 지하 온도는 이 색들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남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벽화의 색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영원성을 의도한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색은 남아 있고,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믿었던 세계관은 벽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붉은색은 붉은 산화철에서 얻은 안료로, 강인함과 따뜻함을 상징한다.

노란색은 황토를 사용했으며, 햇빛에 강해 태양과 신성을 의미한다.

초록색은 말라카이트에서 나왔고, 생명과 풍요를 뜻한다.

파란색은 아즈루라이트나 구리 화합물로 만들어졌는데, 매우 귀한 색으로 하늘과 나일강, 신성함을 상징한다.

흰색은 석회석이나 석고를 사용해 배경이나 의복을 표현하는데 쓰였다.

검정은 목탄이나 망간으로 만들어졌으며, 사후 세계와 죽음, 동시에 비옥한 토양을 의미했다.

노동자의 삶

왕가의 계곡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 파라오와 신들의 이야기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그 거대한 무덤을 실제로 만들어 낸 것은 이름조차 남지 않은 노동자들이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왕묘에서 발견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삶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적다.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그들의 삶을 추정해보면 이렇다.

당시 무덤을 만드는 장인들은 국가에 소속된 숙련 장인 공동체였으며, 데이르 엘 메디나라는 계획된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곡물과 맥주, 빵, 기름, 의복용 아마포 등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곡물은 한 달 동안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 사실상 화폐 역할을 했고, 병가와 종교 휴일이 기록될 정도로 체계적인 노동 관리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급여가 지연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항의한 기록도 남아 있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파업 사례로 알려져 있다.

10일을 한 주기로 하여 8일동안 작업하고 2일 쉬는 일정으로 일했다. 해가 뜰때부터 질때까지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약 18,000보를 오가며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은 굴착 노동자, 석공, 조각가, 화가, 운반 인력, 서기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졌고 각자의 기술에 따라 역할과 강도가 달랐다. 이들은 작업 기간 동안 왕가의 계곡 인근 숙소에서 머물다가 휴식일이 되면 마을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텃밭을 가꾸거나 개인 공예품을 만드는 등 자신의 생활을 이어갔다. 출근 기록에는 병가나 장례, 가족 간호는 물론 ‘맥주를 많이 마셔 결근함’ 같은 사유까지 남아 있다.

똑똑한 이집트인

룩소르 지역은 오래전부터 알라바스터로 유명하다. 빛을 은하게 품는 돌로 알려진 알라바스터는 비교적 부드러운 조각이 용이하며,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신전 장식과 향유병, 조각상, 장례 용기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여행 중에는 이른바 ‘알라바스터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장인들이 돌을 직접 깎고 다듬으며 조각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여준다. 망치와 끌로 돌을 다듬는 모습은 수천 년 전 무덤과 신전을 만들던 장인들의 작업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오늘날 이러한 시연은 여행객을 위한 기념품 제작과 판매를 목

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고대부터 이어져 온 재료와 기술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금속세공도 잘하기로 유명하다. 나일강 상류 누비아 지역에서 엄청난 금이 나왔는데, 고대에는 금의 나라로 불렸다고 한다. 그만큼 금을 세공하는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카이로와 룩소르에는 많은 금 세공 가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반지를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은 레이저커팅을 하고 손으로 마감하는 일이 많지만, 예전에는 디테일하게 손으로 모두 했어야 한다.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보면, 아주 세련된 디자인에 깔끔한 마감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에서 놀란것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현지 가이드들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와 농업 및 에너지 사업과 함께 관광업이 중요한 산업인 이집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외국어를 구사한다. 완전 로컬로 가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본 영어는 어느정도 하는 듯하다.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으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스페니쉬, 영어를 하는 수 많은 현지 가이드를 볼 수 있다. 신기하게도 한국어를 하는 가이드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어 가이드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발음과 표현이 거의 중국 현지인만큼 훌륭했다. 영어가이드도 마찬가지다. 유적을 볼때 간간히 들리는 가이드들의 완벽한 외국어 설명을 들을 때면 너무 신기했다.

흥정을 싫어하거나 가격이 명확하게 정해진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집트 여행은 때때로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거리와 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흥정의 대상이 되고, 정해

진 가격이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집트 문화의 한 단면처럼 보였다. 상인들은 먼저 가격을 제시하기보다 “마이 프렌드, 하우 머치?”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가 먼저 값을 말하도록 유도해 구매 의사를 확인하고 협상의 기준점을 만들려는 일종의 심리적 전략이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며, 흥정 과정 자체가 거래이자 소통의 일부가 된다. 결국 이 낯선 방식은 무질서가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읽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오랜 상업 문화 속에서 발전한 이집트인들의 또 다른 지혜처럼 느껴졌다.

벌써 날이 뜨거워졌다. 두시간 남짓 왕가의 무덤을 보고났더니, 이미 너무 피곤하다.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혼잡하게 사람들이 뒤엉켜서 달리고 몸싸움까지 한다. 걸으면 5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기도 하고, 내리막 길이니까 우리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기사를 만나서, 시원한 택시에서 조금 한숨 돌리며 다음 행선지인 하트셉투스의 장제전으로 간다.

하트셉투스의 장제전

입장료: 440 EGP 운영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5시

하트셉투스는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파라오의 지위에 오른 여성이다. 투트모스 1세의 딸로 태어나, 이복오빠이자 파라오였던 투트모스 2세와 17세에 결혼했다. 스물여덟 살 무렵 남편이 사망하자, 아직 어린 의붓아들 투트모스 3세를



하트셉수트 장제전 정면부

대신해 섭정으로 권력을 잡게 된다. 그리고 34세쯤 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대리자’가 아닌 스스로를 파라오로 선언한다.

즉위 초기에는 여왕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남성 파라오의 형상을 취했다. 수염을 붙이고, 남성의 몸을 한 조각상과 벽화가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당시 파라오라는 권력이 ‘남성’이라는 형식 안에서만 온전히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트셉수트의 통치는 전쟁보다 무역과 경제에 집중된 시기로 평가된다. 대규모 원정 대신 평화로운 외교를 선택했고, 그 결과 국력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제전을 건설하고,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의 일부를 확장했다. 특히 아문신을 깊이 신봉하며,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고 믿었다. 왕권은 혈통이 아니라 신성에서 비롯된다는 논리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녀는 49세에 사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성인이 된 투트모스 3세가 어머니이자 섭정이었던 하트셉수트의 벽화와 이름을 훼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랜 시간 권력에 눌러 있었던 아들의 분노와 원망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훼손의 상당 부분이 투트모스 3세 사후,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2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 파라오라는 선례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해석이다.

하트셉수트는 약 20년에 걸쳐 통치한,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한 여성 파라오였다. 그녀의 건축적 업적은 특히 뛰어나다. 세넬무트의 기획 아래 15년에 걸쳐 건설된 데이르 엘 바하리의 장제전은,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신전 건축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 권력의 정당성을 돌과 축으로 증명해낸, 극히 이집트적인 방식이었다.

신전 매표소에서 장제전까지는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25파운드를 내고 왕복 셔틀버스를 탔다. 셔틀을 탄 것이 민망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지만, 한발자국이라도 덜 걷고 싶어서 돌아오는 길에도 셔틀버스를 탔다. 셔틀에서 내리면, 산 절벽앞에 멋지게 서있는 계단식 테라스 구조를 가진 현대적 건물이 나타난다. 비행기와 열기구에서도 보일만큼 건물의 형태가 현대적이고 규모가 웅장하다. 그리스 신전처럼 자연과 동화되면서 수평적인 넓은 공간에 수직의 기둥들이 줄을 맞춰서 서있다. 분명 그리스 신전보다 천년은 앞서서 만들어진 건물인데, 한눈에 보아도 그리스 신전같다. 다른점은 신전 기둥과 벽면에 하트셉수트의 탄생신화, 폰트와의 교역, 신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이미 카르낙 신전과 왕들의 묘지 벽화를 본 후여서 그런지, 큰 감흥이 없다. 벽에 새겨졌던 그림들이 흐릿하고 색들도 많이 날아갔다. 보존상태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하토르신을 상징하는 소의 젖을 먹고 있는 하트셉수트의 모습과 폰트와의 교역을 통해 가져온 향료나무들의 그림이 인상적이다. 폰트는 고고학자들이 확정할 수는 없지만 홍해 하류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나일강 상류로 가서, 홍해지역까지 배를 분해해서 옮긴 후 홍해에서 다시 배를 타고 폰트지역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몰약과 유향 나무를 뿌리째 사와서 이 신전에 옮겨 심었다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신전이 푸르른 나무들로 가득찼었다고 한다. 벽화를 보면 많은 나무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평화 무역을 통해 교류하고 영역을 확장했던 왕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다.

하토르신 (소모양)의 젖을 받아먹고 있는 하트셉수트 여왕





향료나무를 그린 벽화. 과거 장제전 앞마당도 향료나무로 가득했다

하트샵수트 장제전의 가장 위층에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작은 방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관광객들이 퇴약별 아래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들어가 보니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했지만, 줄이 길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입구를 지키던 직원이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느라 입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천천히 관람한다면 굳이 긴 줄을 설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지만, 일부 직원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 속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집트 유적지 곳곳에는 ‘지킴이’ 역할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종종 관광객에게 팁을 받고 사진 촬영을 도와주거나 제한 구역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수익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사진이 잘 나오는 위치에 의자를 놓고 길을 막아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공간이 때로는 즉흥적인 상업 행위의 현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러한 장면은 유적의 장엄함과 대조적으로,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의 현실을 동시에 체감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하트셉수트의 장제전까지 보았으니, 내가 계획했던 세 군데의 유적을 다 돌아본것이다. 구글에서 찾아보니 람세스2세의 아내인 네페르타리의 무덤이 있는 왕비의 계곡도 아주 좋다고 했다. 90이상의 왕비와 자녀들의 무덤이 여기 있다. 왕가의 계곡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인데, 네페르타리의 무덤에 들어가려면 따로 티켓을 2,000 파운드에 구매해야 한다고 했다. 고대 이집트 벽화중에 가장 보존이 좋고 아름답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무덤과 벽화를 보았으니 왕비의 계곡은 패스.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마흐매드의 강력한 추천으로 하부신전은 하나 더 보기로 했다. 하부신전에 가기전에 어디 앉아서 커피 한잔을 하자고 했다. 쿨하게 마흐매드가 데려간 길거리 카페. 현지인들만 같지만, 터키쉬 커피와 이집트 차를 주문해서 마흐매드와 같이 쉬었다.



기사 마흐매드 한 컷. 커피와 차를 파는곳은 항상 물담배도 함께 판다.



이집트차 + 민트잎

덥지만 건조함 덕분에 그늘에 있으면 금방 시원해진다. 건강의 안전을 위해 끓인물에 뜨거운 차를 마시지만, 프레쉬민트를 넣으면 청량함이 살아나서 리프레시가 된다.

택시기사 마흐매드

38살인 마흐매드는 세 아이의 아빠다. 영어를 못하지만, 번역기를 써가면서 열심히 설명해주는 순박한 청년이다. 한국에서 수입된 중고 현대 엘란트라를 가지고 택시운전을 한다. 휴먼지가 많은 동네지만 세차를 열심히 하는지, 한글이 아직 남아있는 낡은 그의 차는 항상 깨끗하다.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밝은 마흐매드는 틈만나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한다. 정확히 알아 들을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는것 같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종종 섞어쓰는 영어 단어를 들으며 내용을 유추해보는데, 와이프에 대한 흥을 볼때도 있고 손님테리

고 어디로 간다는 내용도 있는것 같다. 이집트의 택시기사님 들은 항상 이집트 노래를 틀어놓는데, 마흐매드는 노래를 틀 지 않아서 좋다. 그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번역기를 돌려서 대화를 나눴는데, 모든 대화의 시작은 마이프랜드다. 이집트 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차이나, 마이프랜드, 원달러인데, 마흐매드에게 마이프랜드를 제일 많이 들었던것 같다.

망고주스가 먹고 싶다고 하면 가게 앞에 내려주고, 환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은행에서 돈바꾸는 ATM 이 있다고 알려주 고 데려다 주었다. 지나가면서 맛있는 음식점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본인의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다. 보통 기사들 은 유적지에 내려다주고, 그냥 차에서 기다리는 편이다. 그런데 마흐매드는 관람을 마치고 10분이나 15분 전에 연락을 주 면,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 맞춰서 데리러 온다. 그가 시간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게 좋았다.

이틀동안 투어를 함께 해준 마흐매드가 고마워서 마스크팩 과 수분크림 샘플들을 선물로 주었다. 뉴욕에 돌아오니 왓츠 앱으로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다. 혹시 이집트 카 이로 여행을 간다면 마이 프랜드 마흐매드를 만나보시길.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왓츠앱으로 연락가능하다.

마이 프랜드 마흐매드 번호: +20 15 55501377

이제 오늘의 마지막 유적지인 하부신전을 가기로 했다. 마흐 매드가 강력하게 추천했기에 가보기로. 티켓을 파는 곳이 신 전에서 2키로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신전에서는 티켓을 판매 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는 구매가 가능하다. 입장료는 220 파운드였고,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메디넷 하부신전

입장료 : 220 EGP 운영시간: 매일 오전6시 - 오후5시

메디넷 하부신전은 람세스3세가 지은 신전이다. 신왕국 후기의 강력했던 마지막 파라오의 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우선 신전 초입에 있는 요새처럼 높은 성벽에서부터 벽화가 심상치 않다. 커다란 왕이 한손에는 세명의 작은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고있고 다른 한손으로는 칼을 내리치고 있다. 해적들과의 전투를 벌여서 이집트를 지켜냈던 람세스3세의 용맹했던 전쟁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성벽처럼 보이는 입구를 지나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마주 보듯 서 있는 세크메트 조각상들이 방문자를 맞이한다. 세크메트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도 여러 점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 낯설지 않은 존재인데, 상위 포식자인 사자의



머리에 여성의 몸을 지닌 모습으로 손에는 영원을 상징하는 앙크를 들고, 머리 위에는 태양을 의미하는 원반을 얹고 있다. 그녀는 분노와 치유를 동시에 상징하는 여신으로, 태양신 라의 명령을 받아 인간들을 벌했던 파괴의 신이면서도 질병이 닳쳤을 때 치유를 위해 기도를 받던 존재이기도 했다. 신전에서 마주한 조각상들은 사막의 시간 속에서 있었지만, 문득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보았던 더 매끄럽고 온전한 상태의 세크메트들이 떠올랐다. 실제 유적지의 유물보다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이 훨씬 좋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잘 보존된 유물들이 선택적으로 반출되고 수집되었을 역사적 과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본래의 장소를 떠난 채 전시된 유물들을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남는다.

세크메트를 지나면 커다란 중앙홀 양편으로 기둥들이 줄지어 있다. 워낙 건물이 높고 벽이 두꺼운지라 위압감이 엄청나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대형 그림은 대부분이 학살장면이다. 왕이 칼을 휘두르거나 지팡이를 꽂아넣는 곳에는 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떨고있다. 마차를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왕의 모습과 마차 아래에 아비규환이 되어서 엉겨있는 작은 사람들이 안쓰럽기까지하다. 용맹하면서 자비도 없는 왕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남겼다.

이 신전의 벽화와 천장 그림들은 지금까지 본 유적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색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인물의 형태와 장면들이 또렷하게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름



거대한 규모와 디테일한 조각과 색감이 최고였던 하부신전. 강력추천한다.



치마의 섬세한 표현과 다양한 헤어스타일, 사람들의 표정까지 마치 최근에 제작된 작품처럼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보아 온 수많은 벽화들 중에서도 이곳은 완성도와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난 공간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인상적이었고, 이곳을 놓쳤다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너무도 아름다운 벽화들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아쉽게 느껴졌다. 하부신전의 벽화는 단순히 표면을 장식한 그림이 아니라 깊게 파인 음각 부조로 제작되어 있었는데, 이는 강렬한 사막의 햇빛 속에서도 인물과 상형문자가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각 방식이었다. 빛이 벽을 스칠 때마다 그림자는 선을 따라 살아나고, 마치 태양 자체가 벽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처럼 느껴졌다.

메디넷 하부 신전까지 다 보고 왔더니, 너무 피곤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신전내의 벤치에 앉아서 남편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쉬면서 마흐매드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 마흐매드가 우리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더웠던 날씨에 땀을 워낙 흘려서, 숙소에 오면 바로 씻기부터 한다. 이번 여행은 배낭을 매고 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옷을 챙겨왔다. 속옷과 양말, 티셔츠까지도 매일 손빨래를 해서 방에 넣어두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빨래도 잘 마르면서 방의 건조함은 덜해진다. 짐도 줄어드니 일석 삼조다. 호텔에서 씻고 조금 휴식을 취했더니 벌써 저녁시간이다. 오늘은 어제

갔던 음식점에서 생선요리를 먹을 예정이다.

음식점에 갔더니, 저녁 장사를 준비중에 계셨다. 가게 앞에 물을 뿌려서 먼지가 일지 않게 했고, 테이블도 의자도 물청소를 하시고 계셨다.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피쉬? 라고 하셨다. 어제 생선 먹을테니 두 마리 남겨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기 때문이다. 메인요리로 생선 구이와 생선 튀김을 주문했다. 구이와 튀김의 차이점을 모르겠지만, 생선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새벽4시쯤에 일어난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오늘도 저녁을 먹고 어서 자야겠다.

일출 명상

시차 덕분에 오늘도 새벽 일찍 눈이 떠졌다. 덕분에 매일 아침 4시 50분쯤 시작되는 첫 기도 아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은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마음을 묘하게 울리는 힘이 있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멍하니 나일강과 강 건너 도시의 실루엣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일출의 순간이 다가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공기가 차가워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담요까지 덮어야 할 만큼 추웠지만,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주변의 온도와 빛이 순식간에 바뀌며 따뜻함이 퍼진다. 밤과 낮, 차가움과 온기가 짧은 시간 안에 교차하는 이 변화 속에서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호텔에서 맛있는 조식을 천천히 먹은 후 기차역으로 이동해 10시 30분 기차를 탄다. 기차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우리는 기차표를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했다. 기차표는 탑승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예매할 때는 이집트인만 살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그래서 이집트인으로 표기하고, 주민번호를 넣으라고 해서 아무숫자나 눌러넣었다. 여자는 끝이 짝수여야하고, 남자는 홀수여야한다. 티켓은 샀지만, 이집트에 와보니 외국인과 현지인의 가격이 10배 차이나는것을 보고서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 기차에서 티켓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우선 기차를 타기로 했다.

호텔에서 강변까지 걸어가서, 공공페리를 타고 강을 건너 후 기차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날이 덥고 기차 시간이 빠듯해서 빠르게 걸었더니 너무 힘들었다. 지나가는 마을버스를 간절히 타고 싶었지만, 마을버스를 탈 줄을 몰라서 30분 정도를 걸어서 기차역에 겨우 빠듯하게 도착했다. 헉헉 거리면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에 딱 맞춰서 기차가 도착했다. 기차를 타려고했더니, 빵파는 젊은이가 이 기차 아니라며 안된다며 극구 나를 말린다. 역무원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탈 기차는 다음에 온단다. 땀범벅이 된 우리는 우선 벤치에 가방을 내리고 다음 기차를 기다렸다.



공공페리를 타면 10EGP 이다. 물고 따지지말고, 10 내고 탑승하면됨

슬로우 이집트

10분 후 쯤 다음 기차가 왔는데, 영 기차의 상태가 좋지 않다. 사람들이 모두 창문을 열고 앉아있고 부서질듯한 의자와 창문이 떨어져간 칸도 있다. 이 기차도 우리가 탈 기차가 아니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깔끔한 운동화에 옷도 점잖게 입으신 이집트 신사에게 내 표를 보여주며 물어보았다. 본인도 같은 기차를 타니까 걱정말고 같이 기다리자고 하셨다. 신사 옆에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많은 기차들을 보내주어야 했다. 결국 두 시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가 탈 기차가 왔다.

이제 생각해보니, 두시간 연착은 조금 긴 편이었지만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연착은 늘상 있는 일 같았다. 비행기도 20분씩 연착되고, 공공버스나 공공페리도 늘상 연착이란다. 함께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집트 사람들 그 누구도 화를 내거나 조급해 하지 않는다. 관광온 외국인들만 어리둥절해서 기차가 오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뿐이다.

두 시간의 기다림 끝에 기차를 탔다. 좌석을 안내해주고 짐을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근처에 있던 미국인 노부부는 캐리어와 가방을 그들에게 뺏겼다. 좌석까지 안내해주더니, 탑을 두둑히 챙겨서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지정석이 있는 기차지만 기차칸만 맞으면 아무데나 앉아도 된다고 한다.

기차가 출발 후 역무원이 표검사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은 내국인의 10배 가격이라고 했다. 내가 영수증을 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외국인용 티켓 하나를 주면서 2명이서 티켓 하나값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우리 앞자리에 앉았던 터번까지 쓴 이집트 아저씨는 내가 현금을 주는것을 보고 엄청 화를 내셨다. 현금을 주지 말라며, 다른 현지인들에게도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분개하시는 듯하다. 40불을 현금으로 내었는데, 역무원이 꿀꺽했을것 같은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아랍어 한마디 못하는 외국인이니, 원 플러스 원으로 기차탄것에 만족해야지.

두 시간의 연착으로 아스완에서 보려고 했던 필레 신전을 못 보게 되었다. 아.. 티켓값이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도시로 이동한 후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한다면, 티켓은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처럼 연착되거나 상황이 바뀌면 아까운 티켓비를 버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나저나 따뜻한 휴양의 도시 아스완에 드디어 도착했다. 유후~

시가 그려준 아스완 풍경.
누비안 빌리지 숙소의 모습을 재현한것이 신기하다.



아스완 2박 3일

Day 1 - 전통시장 & 누비안 빌리지

Day 2 - 아부심벨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던지 기차역은 항상 시장이랑 근접해있다.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다. 아스완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우선 늦은 점심을 먹고 호텔로 가려고한다. 리뷰가 좋은 Abeer Restaurant 을 찾아갔다. 현지인도 많고, 레스토랑이 세군데나 있다. 장사가 잘 되어서 확장한 느낌이다. 서빙하는 직원과 주문받는 직원의 역할이 분명하다. 주문받는 직원은 영어를 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영어를 못한다. 이제는 익숙한 이집트빵, 샐러드, 고기 바베큐 및 밥 세트를 시켰다. 옴마나. 너무 맛있다!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시장을 조금 둘러보기로 했다. 시장에서 오렌지와 간식으로 먹을 팬케이크 같은 현지 빵을 샀다. 시장 상인들은 친절하면서도 귀찮게 굴지 않았다. 언제나 시장 구경을 좋아하지만 사실 살것은 없다. 뭐가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머리를 짜내어 찾은것이 손톱깎이다. 일주일 넘게 여행을 하니, 손발톱을 깎을때가 되었다. 그래서 잡화를 파는 좌판에서 손톱깎이를 흥정해서 1달러에 샀다. 그리고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러서 타고 호텔로 향했다.



장작불에 구운 음식은 실패하기가 어렵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메뉴들.

호텔 Dolty Kato Nubian House 누비안 빌리지

2박에 275 달러.

우리 호텔은 누비안족이 모여 사는 아스완 나일강 서남쪽의 누비안 빌리지에 위치해 있다. 누비안족은 원래 나일강 남부, 오늘날 수단과 접경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 1970년대 아스완 하이댐이 건설되면서 고향 마을이 수몰되어 지금의 지역으로 이주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아스완에는 세 곳의 대표적인 누비안 마을이 있는데, 엘레판틴 섬과 서해일 섬,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가르브 수하일 지역이다.

두 섬은 기차역 근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지만, 가르브 수하일은 육로로 이동해야 한다. 시장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한동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낙후된 비포장 시골길로 들어섰고, 먼지가 날리는 길을 한참이나 달렸다. 속소를 너무 외진 곳에 잘못 잡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서서히 밀려왔다. 내가 상상했던 곳은 알록달록한 색의 집들과 강가를 따라 작은 상점들이 이어진 활기찬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점점 어두워지는 풍경 속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며 마음이 조금씩 초조해졌다.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이윽고 택시 기사는 작은 가게 몇 곳이 모여 있는 길목에서 우리를 내려주었다. 우리가 보기도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는 없어 보였다. 구글맵을 확인하니 숙소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짐을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옮기자, 내가 상상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작은 상점들이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누비안족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곳들이었다. 스카프와 전통 의상, 아기가기한 기념품, 향신료까지—색과 향이 뒤섞인 골목에 눈은 실 틈이 없었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졌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선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하기로 했다. 우리가 예약한 호텔은 누비안 빌리지 중심에 자리한,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었다. 젊은 사장과 직원들이 전통 스타일로 정성스럽게 꾸민 호텔이 나일강 바로 옆에서 있었다. 발코니가 있는 방을 예약했는데, 발코니가 거의 강 위에 떠 있는 듯 느껴질 만큼 물과 가까웠다.

다음 날 아부심벨로 가기 위해 버스를 예약해두었지만, 투어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체크인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직접 투어 회사 연락처를 받아 계속 전화를 시도했다. 마침내 연락이 닿았고, 예약을 다시 확인한 뒤 모든 일정을 정리해 주었다.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다. 호텔에 짐을 풀고, 누비안 빌리지를 구경나갔다. 길게 늘어선 상점마다 관광상품을 판매했는데, 수공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었다. 스카프 가게에서 할아버지가 배틀을 사용해서 울& 린넨 스카프를 짜고 계셨다. 색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아서 스카프를 샀다. 차와 향이 나는 오일을 파는 가게에서는 망고티와 민트티를 조금씩 샀다. 그 외에도 구경할거리가 많은 길이었다. 그렇게 가게 구경을 하면서 쪽 가다보니 길 끝에 있는 주스파는 가게에 도착했다.



전통방식으로 스카프를 짜는 장인 할아버지.

설탕 망고주스

이집트 여행 후기를 보면 다들 망고주스를 칭찬한다. 나도 홀린 듯이 매일 망고주스를 사 마셨다. 망고 덩어리가 그대로 들어간 진득한 단맛. 너무 맛있었다! 그런데 아스완 누비안 빌리지의 한 주스집에서 ‘영업비밀’을 봐버렸다. 사장님은 망고를 믹서에 넣으며 너무 자연스럽게 물었다. “설탕 넣을까요?” 설탕을 넣지 않은 받은 망고주스를 마시자, 그제야 내가 아는 ‘망고의 맛’이 났다. 이집트 망고가 특별해서라기보다, 설탕이 특별했던 거다. 그래도 위로를 하자면... 룩소르 사탕수수가 유명하니, 내가 마신 건 룩소르 특산품인 설탕이었을지도 모른다.

버스 투어

오늘은 아부심벨을 보러 가는 날이다. 편도 3시간 30분 거리라 투어 회사를 통해 왕복 버스를 예약했다. 새벽 4시, 숙소 앞으로 툽툽 기사가 픽업을 왔다. 호텔에서 준비해 준 아침 도시락을 들고 툽툽에 올랐다. 우리 숙소는 골목이 너무 좁아 차가 들어올 수 없고, 오토바이처럼 날렵한 툽툽만 다닌다.

툽툽을 타고 고속도로 초입까지 나가자, 봉고차와 관광버스, 그리고 툽툽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아, 여기가 1차 집결지인가 보다. 잠깐 기다리니 우리가 탈 봉고차가 도착했다. 우리까지 총 일곱 명이 타는 작은 차였다. 덩치가 큰 남편은 무릎이 앞좌석에 닿을 만큼 비좁게 앉았다. ‘설마 이 좁은 봉고차로 3시간을 달리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핵인싸였던 우리 툽툽기사와 다른 기사들

끝없는 고비 사막을 3시간 달렸다. 고속도로라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여기저기 팻홀이 있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기사들은 위험 요소를 피해 요리조리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었다. 마치 어릴 때 하던 ‘남극체험’ 아케이드 게임처럼 장애물을 피하며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랄까. 세 시간을 달리는 동안 조금 잠도 잤고, 해 뜨는 것도 봤다.

호텔 도시락은 기대보다 훨씬 근사했고 양도 많았다. 사과와 망고주스, 미니 초코 크로와상, 삶은 달걀 2개, 빵과 치즈랑 무화과잼, 물까지. 호텔에서 꼼꼼히도 잘 챙겨주었다. 우리는 좁고 흔들리는 봉고 안에서 조심조심 공을 들여서 도시락을 까먹었다.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사막을 달리면서 도란도란 풍경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퍼즐조각처럼 끼워맞추며 시간을 보냈다.

갑분 남편 자랑을 하자면, 우리 남편은 잡학다식하다. 나는 관심 있는 분야만 깊게 파고드는 편이라 관심 밖의 분야에서는 지식이 딱 빈약하다. 지식의 ‘평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설명이 딱일듯. 그런데 남편은 두루두루 이것저것 잘 안다. 어릴 때 역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영 거짓부렁은 아닌가보다. 길치에 방향치인 나로서는 역사와 지리에 해박하고 길눈이 밝은 남편이 여행 내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서로 공부해서 저녁 식사 후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 낮에 틈틈히 보았던 뉴스나 상황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다. 의견이 갈리거나 서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간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와이프를 위해서 세계 뉴스를 업데이트 시켜주느라 남편이 수고가



아부심벨 정면에서 바라본 뷰

많다. 여하튼 우리는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거니, 참 좋은 조합이라 생각한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I hope so. 여차저차 도착한 아부심벨. 드디어 봉고차에서 내려 허리도 펴고, 20 파운드 내면 화장실도 갈 수 있다!!!

아부심벨 신전

입장료: 750 EGP 운영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5시

람세스 2세가 지은 아부심벨 신전은 그의 왕성한 과시욕을 보여주는 신전으로 유명하다. 옛날 파라오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후대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건축물을 짓고 유물에 이름을 새겼다. 66년이라는 최장 통치를 한 람세스 2세는 스스로를 가장 위대한 파라오라 생각했고, 수많은 신전과 궁전

을 지었다. 그 중 하나가 아부심벨 신전이다. 원래 나일강 2폭포 근처 암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암벽 신전이다. 대신전은 본인을 위해, 소신전은 아내 네페르타리를 위해 세워졌다. 신왕국이 몰락하며 모래 속에 묻혔지만, 1813년에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비옥한 농토를 만들어 농경 문명을 번성시켰다. 그러나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강의 범람은 반갑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래서 1960년대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여 아프리카 최대 인공호수인 나세르호(Nasser Lake)를 만들었다. 이때 낮은 지대에 살던 누비안 마을과 많은 유적지가 수몰되었다. 유네스코 덕분에 옮길 수 있는 아부심벨 신전은 지역을 옮겨 재건축했고, 일부 유물들은 문화재 복구에 도움을 준 국가에 선물로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텐두르 신전은 1967년 유네스코 프로젝트에 크게 이바지한 미국에 감사 선물로 주었고, 미술관에는 1978년에 복원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도움을 준 나라들에게 문화재를 선물로 주는 대신, 그 나라들이 알아서 발굴하고 데려가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다.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면 거대한 돌 산이 보인다. 그 돌 산에 입구를 파서 신전을 만든 것이다. 입구에는 4개의 거대한 좌상이 있는데, 모두 람세스 2세를 표현한다. 높이 33미터, 폭 38미터의 입구 파사드는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며, 람세스 2세의 청년기부터 장년기까지 모습을 담았다. 왼쪽 두 번째 상은 지진으로 부서져 앞에 떨어져 있다. 좌상 사이에는 조그마한

부인과 가족들의 조각도 함께 있다. 람세스2세가 매우 사랑했던 아내 네페르타리를 위한 소신전(하토르 신전)도 옆에 함께 짓고 가족의 그림과 조각을 항상 넣은것을 미루어보아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었을것이다. 그리고 그가 쓴 헌정문에는 그녀를 위해 태양이 비춘다 라고 쓸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었다.

입구를 지나면 오시리스 형태의 람세스 2세 조각이 여덟구, 기둥처럼 줄지어 서 있다. 어떤 상은 상이집트의 흰 왕관(헤제트, 길쭉한 볼링핀처럼 보이는 형태)을, 또 어떤 상은 상하이집트를 합친 이중왕관(프센트)을 쓰고 있다.

벽면에는 카데시 전투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벽화만 보면 람세스 2세의 압도적 승리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집트 측 기록은 “군이 흩어졌지만 람세스가 홀로 신적 존재처럼 싸워 적을 무너뜨렸다”는 식으로 왕의 영웅담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카데시 전투는 결정적 승패가 갈리지 않은 교착전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고, 이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평화(동맹) 조약을 맺는다.



입구를 지나면 보이는 석상들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왕관을 쓰고있다.

이 조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평화조약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되며, 유엔 본부에도 복사본이 걸려 있다. 다만 ‘은판 원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히타이트 측 점토판 사본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리고 벽화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가 있다. 바로 발기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민(Min)이다. 길쭉한 두 깃털 왕관을 쓰고 한 팔을 들어 올린 민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풍요를 기원하는 맥락에서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다른 신전에서는 못 봤던 민을 율리 찾기 하듯 한 번 찾아 보시길. 참고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대신전 내부에는 네개의 신이 앉아 있는데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면 동서부 멤피스의 프타, 테베 룩소르의 아문신, 신격화한 람세스 2세, 그리고 태양신의 한 형태인 호라티크신이다. 매년 2월 22일 (즉위 기념일)과 10월 22일 (람세스2세의 생일)에는 태양빛이 20분간 안쪽까지 들어와 신상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지만, 맨 왼쪽 프타 신상에는 빛이 닿지 않게 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민과 다양한 신들의 만남 장면



아부심벨 가장 내부에 있는 세 명의 신과 람세스2세의 조각

이 신전을 수몰지역에서 현재 있는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천개가 넘는 조각으로 잘라서 옮겼다고한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시기와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정밀하게 퍼즐맞추듯이 다시 재조립을 했는데, 통합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절벽을 통으로 깎아서 만든 신전이었기에, 현재 위치에는 커다란 인공돌산을 먼저 만들고 신전을 옮겼다고 한다. 사람이 못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실로 엄청난 프로젝트 였다. 이집트에 가서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을 인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벽돌도 수공으로 만들고, 길공사도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조금씩 일구어낸다. 이 신전도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을거라는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조금 떨어져서 아부심벨을 바라보면 격자문양으로 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줄이 바로 해체와 조립을 했던 퍼즐의 외곽선이다.

대신전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소신전(하토르 신전, 네페르타리 신전)으로 이동한다. 대신전이 람세스 2세의 위엄과 전쟁, 국가 권력을 전면에 내세운 공간이라면, 소신전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여신의 공간, 사랑과 음악, 왕비 네페르타리”의 곁이 강하게 느껴진다. 람세스 2세가 하토르(Hathor)와 자신의 가장 사랑받던 왕비 네페르타리에게 바친 신전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왕비에게 신전을 이렇게 크게 헌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카데시 전투에서 적국 병사의 목을 베는 람세스 2세



정면 파사드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거대한 입상 6개다. 람세스 2세가 4개, 네페르타리가 2개 서 있는데, 네페르타리 입상이 왕과 거의 같은 크기로서 있다. 이것은 왕비의 위상이 올라갔음을 보여준다. 입상 아래쪽에는 왕자·공주 같은 가족 조각들도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가족적인 람세스2세의 갖벽함을 보여주려한다.

이 지점에서 신왕국시대의 변화가 떠오른다. 신왕국, 특히 18왕조 후반~아마르나 전후로 가면 왕비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조각과 부조에서도 부부를 더 동등하고 친밀하게 표현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왕과 왕비가 비슷한 크기로 서기도 하고, 어떤 부부상에서는 왕비가 남편의 허리나 몸을 감싸듯 잡는 포즈도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애정 표현이라기보다 왕비가 하토르 같은 보호와 정당성의 상징으로 기능한다는 해석도 있다.



신전 내부의 하토르식 기둥들

안으로 들어가면 대신전에서 보던 오시리스 형태 기둥이 아니라, 기둥머리에 하토르의 얼굴이 새겨진 하토르식 기둥들이 맞아준다. 벽면은 네페르타리가 의식을 수행하고 신에게 봉헌하는 장면들이 중심인데, 네페르타리가 하토르와 연결된 의식 악기인 시스트럼(sistrum)을 들고 연주하거나 제의를 돕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남편의 신전보다는 조금 작지만, 여전히 대규모를 자랑하는 왕비의 신전

신전을 다 보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산책로가 있다. 그 길을 쪽 걸어가면 기념품 샵과 커피숍이 나온다.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카페 뒤 쪽 정원 자리에 앉아 한동안 강바람과 풍경을 같이 마셨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다. 정원 한쪽에 있는 비둘기집이다. 이집트에서는 비둘기가 그냥 새가 아니라 식재료이기도 하다. 이집트의 특식 중 하나로 비둘기 고기가 있는데, 비둘기 배 안에 밥(혹은 곡물과 향신료)을 채워 넣고 구워 먹는 요리다. 지역마다 키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곳에서는

비둘기를 키우기 위해 비둘기 아파트 같은 집을 지어두고 사육한다. 우리는 먹는 걸로는 실험을 안 하는 편이라, 페루에 갔을때도 기니피그 구이를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것 처럼 이번 여행에서는 비둘기 요리를 아예 선택지에 올리지 않았다. 이번 여행은 미식여행을 하는게 아닌 유적탐험 여행이니까.

따뜻한 별아래서 마신 커피 한잔은 참 좋았다.



붉은 흙으로 지어진 비둘기 아파트

다시 3시간에 걸쳐 봉고차를 타고 툽툽을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에 오니 늦은 점심시간이 되었다. 우리 호텔에서 운영하는 루프탑 레스토랑이 제일 리뷰가 좋은 맛집이기에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 역시나 맛있다. 이집트 음식이 내 식성에 잘 맞는건지, 내가 까다롭지 않은건지 모르겠지만 건강식인 이집트 음식이 너무 좋다. 콩을 많이 사용하고, 담백하게 토마토를 베이스로 끓여먹는 요리가 많다. 미국에 돌아가면, 이집트식 요리를 좀 연습해봐야겠다. 그러려면 스튜처럼 몽근하게 끓일 수 있는 작은 냄비부터 사야겠다.

이집트 요리 간단 레시피

올리브유에 양파와 마늘을 넣고 몽근히 볶은 후, 토마토 소스와 소금으로 간을 한다. 그리고 원하는 주재료 (감자, 가지, 고기 등등)와 물을 조금 넣고 약불에서 푹 졸이면 된다. 국물이 자작해지고 재료가 푹 익으면 요리 완성!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조금 쉬기로 했다. 여행을 마무리 하면서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로 돌아갈것이다. 카이로에서 반나절 동안 이집트 문명박물관에 가서 왕족의 미이라를 본 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간다. 발코니에 앉아서 빠른 유속의 나일강을 보며 물멍을 했다. 누비안마을에 구경왔던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배를 타고 속소가 있는 다른 섬으로 돌아가는것을 구경했다.

석양무렵에는 많은 배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더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니 나일강이 조용해졌다. 저녁으로 간단히 스프와 야채 스텐트를 룸서비스로 시켜서 발코니에서 늦은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차도 한잔하면서 두런두런 여행을 마무리 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참 여유롭고 좋았다.



호텔방 발코니에서 본 일출. 시차덕분에 매일 일출을 보았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행복

이제 여행을 슬슬 정리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천천히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공항으로 가야한다. 11시 20분 비행기니까, 숙소에서 9시40분에는 떠나야 한다. 자동차로 20분거리 인데, 길이 좁은 누비안 마을까지는 차가 들어올 수 없으니 큰 길로 걸어 나가서 택시를 부를 예정이다. 배낭을 메고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다. 열 발자국쯤 걸었을까, 어린 소년이 운전하는 특특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큰길까지만 가자며 1달러를 불렀다. 잔돈도 없고 흥정도 귀찮아서, 그냥 그 정도면 서로 깔끔하겠다 싶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아이를 대신해 흥정을 시작했다. 3달러를 달라고 했다. 나는 됐다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투 달러!” 하고 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두세 발자국 더 걸었더니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원 달러!” 하고 급히 타협이 떨어졌다. 결국 특특을 타고 마을 큰길까지 가기로 했다.

특특이 덜컹덜컹 비포장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나는 인드라이브로 택시를 불렀다. 도로가 제대로 깔리지 않은 길이라 그런지 택시가 오는 데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큰길에 도착하면 그늘에 앉아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다.

그런데 1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특특 기사는 우리를 내려주고도 떠나지 않았다. 마을길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택시가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했다. 그러다 내게 다가와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전화를 걸어 바꿔주자, 아이는 기사와 한참을 살라살라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시

톡톡을 타라고 손짓했다.

다시 탄 톡톡은 좁은 비포장길을 5분쯤 더 달려, 택시가 서 있는 지점까지 우리를 정확히 데려다주었다. 외지인이라 길에서 헤맬까 봐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나는 1달러를 더 주려고 했다. 아이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싱긋 웃었다. 그래도 나는 “슈크란~” 하고 그 아이 손에 1달러를 쥐여 주었다. 어린 톡톡 기사 덕분에, 아스완을 떠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아스완 공항에서 그 동안 못 마신 비싸디 비싼 맥주도 시원~하게 한잔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행을 아주 좋아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면 어김없이 집이 그리워진다.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행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나는 늘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글을 맺으며.

매번 여행을 할 때마다 인생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된다. 특히 이번 이집트 여행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흔적을 바로 눈앞에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다. 시대, 나라, 문화가 달라도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거대한 신전 벽에 새겨진 전쟁의 과장도, 그 옆에 그려진 풍요를 비는 신의 모습도, 길에서 만난 어린 툭툭 기사처럼 낮선 이를 챙기는 마음도. 형태만 다를 뿐 다 같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누군가는 안전을 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남기고, 누군가는 오늘의 밥과 내일의 운을 걱정한다. 그래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도, 우리가 그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감격을 느꼈다. 수많은 모래알 중. 아 니, 거대한 먼지바람의 미세한 하나의 먼지와 같은 나의 존재를 새삼 느끼며,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준 남편에게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행을 응원해주고, 이 책을 기다려준 동문, 이웃,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 슈크란~

2026년 5월 23일 신선화

이집트 주요 왕조 및 업적

18왕조 - 신왕국의 시작

아흐모세 1세 (Ahmose I)

신왕국을 연 창건 왕. 하이집트와 로우집트를 다시 통일하고, 외래 지배 세력이었던 히소스를 격퇴했다. 이집트가 다시 '이집트다워진' 출발점이다.

아멘호테프 1세 (Amenhotep I)

아흐모세 1세의 아들로, 군사보다는 문화와 건축의 안정에 힘쓴 왕이다. 이 시기부터 사제 계층의 권력이 강화되며, 왕권과 종교가 더욱 긴밀히 엮이기 시작한다.

투트모세 1세 (Thutmose I)

신왕국의 영토를 본격적으로 확장한 왕. 누비아를 정복하고, 사후를 위한 장대한 왕묘 문화를 확립했다. 왕의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더욱 정교해진 시기다.

투트모세 2세 (Thutmose II)

투트모세 1세의 아들. 통치 기간은 짧았고, 업적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하트셉수트 (Hatshepsut)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파라오. 남성 파라오의 상징을 그대로 차용해 스스로를 '왕'으로 표현했다. 대규모 건축과 무역을 통해 국가를 안정시켰으며, 그녀의 존재는 이집트에서 권력가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투트모세 3세 (Thutmose III)

하트셉수트와 공동 통치 후 단독 집권. 수많은 원정을 통해 제국을 확장해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불린다. 군사적 정점에 오른 신왕국의 얼굴이다.

아멘호테프 2세 (Amenhotep II)

투트모세 3세의 아들. 뛰어난 신체 능력과 군사적 역량을 강조한 왕으로, 파라오가 초인적 존재임을 과시하던 시기를 대표한다.

티에 (Tije)

아멘호테프 3세의 왕비. 공식적인 파라오는 아니었지만, 정치와 종교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왕비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권력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왕조 - 제국의 절정과 균열

세티 1세 (Seti I)

강력한 군사 왕으로, 신전과 왕묘 건축에 큰 족적을 남겼다. 왕권의 위엄이 아직 단단히 유지되던 시기다.

람세스 2세 (Ramesses II)

람세스 대왕. 장기 통치, 대규모 건축, 외교 조약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존재. 카르나크 신전 확장, 아부심벨 신전은 그의 권력을 돌로 고정시킨 기념비다.

메렌프타 (Merenptah)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렌프타 석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해, 성서 역사와 연결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티 2세 (Seti II)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려 애쓴 왕. 왕실 내부의 균열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

십타 (Siptah)

어린 나이에 즉위해 실권은 고위 관리들이 행사했다.
파라오 권력이 점차 형식화되는 과도기다.

트우소렛 (Twosret)

십타 이후 즉위한 여성 파라오.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신왕국 말기의 불안정을 온몸으로 겪은 인물이다.

20왕조 - 신왕국의 마지막 숨

람세스 3세 (Ramesses III)

신왕국의 마지막 강력한 파라오. 외적 침입과 반란을 막아냈지만, 경제 위기와 내부 부패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람세스 4세 (Ramesses IV)

람세스 3세의 아들. 건축 사업과 조세 체계를 유지하며 왕권 회복을 시도했다.

람세스 5세 (Ramesses V)

전염병과 정치 불안 속에서 짧게 통치했다. 왕권의 쇠퇴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람세스 6세 (Ramesses VI)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무덤 장식과 신전 건설에 집중했다.

람세스 9세 (Ramesses IX)

신왕국 말기의 파라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붕괴 속에서, 파라오는 제도 자체가 힘을 잃어가는 시기를 상징한다.

고대 이집트 신

고대 이집트에서는 5000 여 종류의 신이 있었다. 신화를 보면 신은 사람과 함께 공존하였는데, 이름도 많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주요신들을 이렇게 정리 해 보았다.

라 (Ra)

태양의 신, 매 머리 인간, 파라오는 라의 아들

오시리스 (Osiris)

죽음·부활·저승, 초록·검은색, 미라 형상, 왕의 지팡이와 채찍 소지. 초록은 재생, 검은색은 나일강의 비옥함을 상징. 동생 세트에게 죽임을 당했다이시스 덕분에 부활. 아들 호루스를 낳음. 죽음에서 부활과 소멸을 심판하는 신.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시스 (Isis)

모성·보호·마법, 오시리스 아내, 호루스 어머니, 머리에 왕좌 문양 또는 소뿔 사이 태양 원반.

호루스 (Horus)

하늘·왕권의 신, 매 형상, 오시리스·이시스 아들, 남북 이집트의 통일된 신으로 여겨짐. 호루스의 눈은 치유·보호·완전성의 상징

아누비스 (Anubis)

미라 제작·장례, 죽은 자 인도자, 검은 자칼의 머리.

토티 (Thoth)

지혜·문자·기록·시간의 신, 따오기 혹은 개코원숭이 형상.

사자의 심장을 재는 장면에서 기록자 역할

아몬 (Amon)

보이지 않는 신성한 힘, 태양신 라와 결합 → 아몬-라

하토르 (Hathor)

사랑·음악·기쁨·풍요·여성성, 소 또는 소 귀 여성

누트 (Nut)

하늘과 별의 여신, 매일 태양 삼키고 낳음

네크베트 (Nekhbet)

상이집트 수호 여신, 독수리

세크메트 (Sekhmet)

힘의 여신, 사자 머리 여성, 원반·코브라 장식

슈 (Shu)

공기·바람의 신, 누트와 게브를 갈라 하늘 떠받침